



한국신화의 주체적 인식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The Subjective Cognition of Korean Mythology and the Identity of National Culture

저자
(Authors) 임재해
Lim Jae-Hae

출처
(Source) [단군학연구](#) ,(17), 2007.12, 255-327(73 pages)
[Journal of Dangun Studies](#) ,(17), 2007.12, 255-327(73 pages)

발행처
(Publisher) [단군학회](#)
Dangun Studies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995955>

APA Style 임재해 (2007). 한국신화의 주체적 인식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단군학연구(17), 255-32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21 13:5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신화의 주체적 인식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임재해*

I. 서론 :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찾는 눈길	III. 민족문화의 원형과 정체성
II. 본풀이와 한국신화의 정체	IV. 결론 : ‘본풀이신화학’이 밝힌 신화연구의 길

I. 서론 :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찾는 눈길¹⁾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겨냥한다. 하나는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고, 둘은 한국신화를 근거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다. 신화는 본질적으로 태초의 이야기이자 신성한 시작의 역사인²⁾ 까닭에, 신화를 전승하는 민족의 원초적 세계관과 초기문화의 실상을 잘 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신화 속에서 문화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신화의 거울을 통해서 민족문화의 정체성도 찾을 수 있

* 안동대학교 교수

1)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는 주제로 개최한 비교민속학회 학술대회(프레스센터, 2007년 11월 1~2일)에서 기초발제한 글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2) Mircea Eliade. *Myths, Dreams and Mysteries*, New York : Collins, 1968, 23쪽에 의하면, 신화는 원시사회 성스러운 역사, 곧 모든 것이 시작되던 성스러운 시간 (in illo tempore)에 일어난 초인간적인 계시로 인식된다.

다. 그러므로 신화는 민족문화의 원형과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갈무리하고 있는 일종의 압축파일이라 생각하며, 이 압축파일을 풀어 읽는 것을 이 논의의 과제로 삼는다.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신화를 자리매김한 이론들을 통해 한국신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변별하는 일이며, 둘은 한국신화가 본디부터 놓여 있던 문화적 상황에서 신화의 정체를 귀납적으로 포착하는 일이다. 결국 신화이론으로 연역적인 정체성 찾기와, 신화자료에서 귀납적인 정체성 찾기로 요약된다. 여기서 뒤의 방법을 택한다. 이미 만들어진 열쇠로 한국신화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한국신화의 실상을 통해 새로운 열쇠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 작업이며, 마련된 새 열쇠로 압축파일을 푸는 것이 다음 작업이다.

대부분의 신화이론들은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수입된 신화이론으로 우리 신화의 정체를 온전하게 밝히기 어렵다. 이론만 외국의 것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신화까지 외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국신화 가운데 북방민족의 신화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남방신화로 해석한다. 마침내 신화와 더불어 민족도 북방이나 남방으로부터 도래한 것으로 해석한다. 전래설이나 도래설에 매몰된 연구는 우리가 사는 한반도를 신화와 문화의 백지도 상태로 설정할 뿐 아니라 마침내 민족적 백지도 상태였던 것처럼 몰아가기 일쑤이다.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외래신화의 전래설로 해명할 수 있을까. 자기 신화를 스스로 읽지 못하는 한계를 남의 신화를 가져오면 순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알지 못하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남의 문화 해석에다 끝어다 붙이면 정당하게 해명될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정체성을 자기 속에서 찾지 않고 자기와 닮은 다른 사람에

게서 찾는 것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셈이다.

더 문제는 닳은 것은 곧 영향을 받은 것이고 영향은 곧 전파에 의한 것이며, 전파는 곧 기원을 뜻하는 것처럼 비약적 해석을 하는 것이다. 영향 받지 않고도 닳은 점을 지닌 것이 인류문화의 보편성이다. 영향 받거나 전파되어도 독자성을 지니는 것이 인류문화의 독창성이다. 서로 영향을 받아도 닳지 않을 수 있으며, 기원이 같아도 다른 양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신화와 닳은 점을 들어서 한국신화의 기원을 거기서 찾는 것은 자기 무능을 드러낼 따름이다.

신화이론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화도 끌어오듯이, 문화이론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화의 원류도 다른 문화로부터 끌어오기 일쑤이다. 우리 민족 자체를 이주민이나 유이민으로 해석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반도나 만주지역에는 본디 사람이 살지 않았거나, 사람들이 살아도 문화나 신화가 없었던 것처럼 간주한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기원도 문화의 원류도 한반도 바깥에서 찾는 것이 예사다.

한반도의 문화적 백지도 상황을 주장하던 식민사학의 패러다임은 세 갈래로 극복되고 있다. 하나는 역사학의 방법과 비교사를 통해 고조선문화를 요서지역 중심의 만주와 한반도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는 연구이고,³⁾ 둘은 사회사학의 관점과 방법에 의해 고조선문화를 대동강 유역 중심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대동강 유역 문명’설이며,⁴⁾ 셋은 고고학적 연구에 의해 고조선 및 고구려 문화를 발해연안에서 형성된 동북아 문명의 중심으로 보는 ‘발해연안문명설’이다.⁵⁾ 지리적 위치의 중심성은 조금 차이가 나도 모두 한민족

3) 윤내현, 『고조선 연구』, 一志社, 1994.

4) 愼鏞廈, 『韓國民族의 形成과 民族社會學』, 지식산업사, 2001.

5) 이형구, 『한국 고대문화의 비밀』, 김영사, 2004.

의 자생적 문화기원설을 펴고 있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민족문화의 기원이나 원류라고 하는 큰 문화체계를 중심으로 보면, 중심적인 발상지가 특정 지역으로 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독립발생설이나 다원발생설을 들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문화는 사람이 사는 사회 곧 모듬살이를 이루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다 있다. 모듬살이 자체가 이미 문화현상이기 때문이다. 사람 사는 곳에 문화가 있었던듯이 신화도 있었다. 신화는 시작의 역사를 말하는 이야기로서 모듬살이 문화의 기본을 이룬다. 따라서 문화 없는 민족이 없듯이 신화 없는 민족도 없고 신화를 전승하지 않는 공동체도 없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사회에서 신화가 전승되지 않거나 스스로 건국신화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화문화의 실상을 알지 못한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건국신화는 이야기를 매체로 한 ‘서사적 정치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국신화는 정치적 서사물로서 건국의 기틀을 다지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국가와 같은 거대 규모의 모듬살이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작은 모듬살이 속에서도 신화적 사유가 있고 신화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마을을 처음 개척하거나 마을에 처음 들어온 입향시조 신화와, 마을을 지켜주는 서낭신에 관한 당신화가 함께 전승된다. 물론 주민들의 신화적 사유와 역사적 경험에 따라 마을신화들이 저마다 다르며 그에 따른 제의도 제각기 다르게 전승된다.

마을에서 전승되는 시조신화와 당신화를 조사해보면, 모듬살이 문화와 더불어 자기 모듬살이의 신성한 시작을 말하는 신화를 두루 수집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제주도에는 270여 신당마다 길고 짧은 당신화가 전승되고 줄거리가 잘 짜여진 것만 50여 편이나 된다.⁷⁾ 모듬살

6) 임재해, 「맥락적 해석에 의한 김알지 신화와 신라문화의 정체성 재인식」, 『比較民俗學』 33, 比較民俗學會, 2007, 585쪽. 다음 각주부터 쓴 이의 글이나 책을 전거로 드는 경우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이를 이루는 마을공동체 성원들이 스스로 자기 신화를 생산하고 전승할 수 있는 신화적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전승되고 있는 마을신화를 통해서 신화문화의 실상을 이해하게 되면, 건국신화의 창조력 부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연물의 의인화를 주장하는 태양신화학파나 제의기원설을 주장하는 제의학과 등의 여러 신화기원설이 실제 신화와 겹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자기 존재의 처음과 시작에 관한 사실을 이야기로 전승하려는 의식이 있다.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자기 집단의 뿌리와 내력에 관한 지식을 전승하지 않을 수 없다. 혈연공동체인 지연공동체인 공동체문화를 이루고 있는 한 신화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와 정치적 기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비록 ‘패배하고 억압당한 민족이라도 신화를 전승하고 재창조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민족적 자부심을 키워왔으며, 소수민족은 물론 천대받는 지방민의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데도 신화가 소중한 구실을 하고 있다.’⁸⁾ 그러므로 구비서사시로 전승되는 신화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집단 어느 민족이라도 인류는 서로 대등하고 문화 창조에서 각기 소중한 구실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⁹⁾

마을 시조신화나 당신화를 보면 건국신화의 논리와 그리 다르지 않다. 당신화의 서낭신이 당나무나 산에 산신으로 깃들여 있듯이, 단군신화의 환웅과 단군이 신단수 또는 아사달의 산신으로 깃들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는 특수한 민족이나 집단만이 누릴 수 있는 특수한 문화가 아니라, 마을의 당신화처럼 어떤 집단이든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승집단에 따라 신화의 내

7)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82~83쪽.

8) 조동일, 『동사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44~45쪽.

9) 조동일, 위의 책, 45쪽.

용이 일정한 특성을 지닐 따름이다. 따라서 한국신화의 정체성은 한국의 신화문화 속에서 찾아야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보는 까닭에, 우리 신화문화 속에서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II. 본풀이와 한국신화의 정체

1. 본풀이로 전승되는 한국신화의 정체

신화는 본래 노래되었다. 우리 신화문화는 노래문화이자 굿문화였다.¹⁰⁾ 문학 갈래로 보면 구비서사시로 전승되었다. 신화가 널리 노래되던 시기가 바로 신화시대이다. 신화시대에는 신화가 널리 지어지고 사실로 믿어지던 시대였다. 신화시대를 역사적 시대구분에 따라 달리 말하면 주술의 시대로 일반화할 수 있고,¹¹⁾ 한국문화의 상황에서는 굿문화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굿문화와 더불어 노래되는 신화를 주목해야 한다.

신화가 굿판에서 노래된다는 것은 곧 굿을 하는 무당이 신화를 노래하는 주체라는 말이다. 그런데 무당들이 굿을 하면서 신화를 노래하지만 도무지 ‘신화’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신화는 우리말이 아니라, 민중들이 쓰는 생활세계의 일상언어가 아니라 학계에서 쓰는 학술용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화의 본디 우리말을 찾아야 한국신

10) 조동일, 「신화의 유산과 그 변모 과정」, 『우리 문학과 의 만남』, 弘盛社, 1978, 82~84쪽에 신화가 굿과 관련되어 노래되었을 것이라는 논의를 자세하게 하였다.

11) 「한국민속사 시대구분의 모색과 공생의 시대 전망」,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 도서출판 당대, 2002, 90~103쪽에서 민속사를 주술의 시대, 예술의 시대, 변혁의 시대로 구분하고 미래를 공생의 시대로 전망했다.

화의 정체성을 풀이하는 실마리가 드러난다.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신화의 어원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뮈토스(Mythos)’의 뜻을 탐색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리스 신화와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신화의 본디 우리말을 찾아서 새겨야 한다. 그럼 곳에서는 신화를 무엇이라 일컫는가. 신화가 노래되는 곳의 현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 곳을 하면서 신화를 노래하는 전통을 잘 보여주는 곳은 성주곳과 제석곳, 칠성곳, 오구곳 등이다. 그리고 신화를 노래하는 곳 문화가 잘 살아있는 지역은 제주도이다. 따라서 신화의 본디 모습은 곳문화 속에 살아있는 무속신화를 통해서 포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주곳이나 제석곳, 그리고 제주도지역의 곳에서 신화의 본디 모습과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성주곳에서 부르는 신화가 ‘성주풀이’이고, 제석곳에서 부르는 신화가 ‘제석본풀이’이다. 성주풀이는 성주신의 근본을 푸는 노래이고, 제석본풀이 또한 제석신의 좌정과정을 풀이하는 서사적인 노래이다. 곳판에서는 아예 신화라는 말이 없다. ‘풀이’ 또는 ‘본풀이’가 신화를 뜻하는 우리말이다. ‘무속신화가 지닌 중요한 속성이 본풀이로 표현될 수 있듯이, 상고대 신화도 본풀이로 간주될 수 있다.’¹²⁾ 따라서 단군신화나 주몽신화란 말도 요즘 학계에서 일컫기 시작한 말이고, 사실은 단군본풀이이자 주몽본풀이라 해야 마땅하다. 같은 논리로 성주풀이나 제석본풀이를 달리 말하면 성주신화이자 제석신화라 할 수 있다.

신화가 노래되는 제주도 곳을 보면 이러한 신화의 본디 모습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아예 ‘서귀포본향본풀이’, ‘세화본향당본풀이’처럼 ‘본향본풀이’ 또는 ‘본향당 본풀이’라고 일컫는다. 당신(堂神)의 본향을 풀이하는 신화를 ‘본향본풀이’라고 하는

12) 金烈圭, 『韓國神話와 巫俗研究』, 一潮閣, 1977, 2쪽.

것이다. ‘성주의 본향이 어드메나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일레라’ 하고 부르는 성주풀이도 사실은 ‘성주본향본풀이’라 해야 옳다. 본향을 묻고 답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당신본풀이 외에도 ‘조상신본풀이’,¹³⁾ ‘일반신본풀이’ 등 본풀이 문화가 드세다.¹⁴⁾ 제주도에는 당신본풀이만 해도 270여 편이나 된다고 하니, 다른 본풀이들까지 두루 살펴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본풀이들이 전승된다. 따라서 제주도는 본풀이의 고장이자 신화의 섬이라 할 만하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신화 논의를 제주도 신화로부터 시작한 것은¹⁵⁾ 풍부한 신화의 전승을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신화를 나타내는 본향당본풀이, 본향본풀이, 본풀이, 풀이는 모두 같은 노래를 뜻하는 말이되, 일반적으로 ‘본풀이’란 말을 주로 쓴다. 본풀이는 ‘본향풀이’의 줄인 말이다.¹⁶⁾ 본풀이에서 말하는 본향은 공간적으로 특정한 장소를 가리킨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본향은 특정 종교의 고향이자 발상지를, 혈연적으로는 성씨시조의 고향을 말한다. 특정 종교의 성인이 태어난 곳이나 득도한 곳 또는 순교한 곳으로서 성지 구실을 하는 곳이 바로 종교적 본향이다. 그러므로 본향은 종교적 발상지이자 성지로서 메카(mecca)를 뜻한다.

실제로 성주풀이에서도 성주 본향을 묻고는 ‘경상도 안동땅 제비

13) 조상신본풀이라 하여 자기 조상신에 관한 혈연적 본풀이가 아니라, 자기 조상을 수호하던 신에 관한 본풀이 곧 조상수호신 본풀이를 말한다.

14) 玄容駿, 앞의 책, 15~66쪽에 제주도 본풀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성과를 수록해 두었다.

15) 조동일, 『동사시구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에서 논의를 제주도 구비서사시에서부터 시작했다.

16) 金烈圭, 「總論 : 民談을 보는 多樣한 눈」, 『民談學概論』, 一潮閣, 1982, 8쪽. “本풀이는 ‘本鄉풀이’라고도 한다. 神靈들의 本鄉·貫鄉에 관한 얘기, 그 根本이며 내력에 관한 얘기란 뜻이다. 탄생에서 神이 되기까지 神이 겪은 이력 또는 傳記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원이 본일레라'하고 구체적인 주소를 말한다. 이처럼 곳에서 말하는 '본향'은 신의 본거지 또는 출생지라는 뜻으로 사용된다.¹⁷⁾ 결국 무신으로 섬기는 신령의 본디 고향을 찾는 것이 본풀이라는 말이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 이름 다음으로 주소 또는 고향이 문제된다.

전통사회에서는 고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서 관향(貫鄕)을 따졌다. 고향이 본적 개념이라면 본향은 시조의 고향으로서 곧 관향 개념에 해당된다. 전통사회에는 이름보다 관향을 더 중요하게 따졌다. 관향이 인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 까닭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우 족보에 주소와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관향과 성은 꼭 밝힌다. 묘지에 세워 둔 비석에도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관향은 밝혀서 새겨둔다. 그러므로 관향이 빠대있는 집안이나 대단한 문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본 자질인 것이다.

그러나 본향을 단순하게 밝히는 것은 '본풀이'라고 하지 않는다. 바리데기 이야기를 두고 오구풀이라 하지 않는 것처럼, 당금애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석본풀이 한다고 일컫지 않는다. 본풀이나 풀이는 모두 노래되는 양식을 뜻하기 때문이다. 본풀이의 본디 모습을 잘 전승하고 있는 제주도 본풀이에서 그러한 성격이 잘 드러난다. 같은 신의 내력담이라도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본풀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신을 모셔 놓은 굿판에서 무악의 가락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것'이다.¹⁸⁾

본풀이는 무당이 굿상을 향해 앉아서 부르는 것으로서¹⁹⁾ 신이 본풀이를 듣고 굿판에 강림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느려옵네다', '떡

17) 金泰坤, 『韓國民間信仰研究』, 集文堂, 1983, 70~71쪽.

18) 玄容駿, 같은 책, 17쪽.

19) 玄容駿, 같은 책, 27쪽.

는구나’ 하고 모두 현재시제로 노래되며, 주고받는 대화체로 구연되는 까닭에 상당히 연극적 성격을 띤다. 본풀이 노래가 신의 현현(顯現)을 실현하는²⁰⁾ 신성한 주술 구실을 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본풀이는 신의 좌정과 영험을 기원하는 곳에서 필수적으로 노래된다.

곳의 성격에 따라 본풀이의 내용도 달라진다. 달리 말하면 본풀이의 내용에 따라 곳이 결정된다는 말이다. 당본풀이는 마을곳이나 고을곳에서 노래되듯이, 건국시조풀이는 나라곳에서 노래되었다. 단군본풀이는 고조선의 나라곳에서 노래되었을 것이고 주몽본풀이는 고구려의 나라곳에서 노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곳에서 전승되는 본풀이의 논리에 따라 한국신화의 정체를 풀지 않을 수 없다.

2. 본풀이에 갈무리된 신화적 세계인식

본풀이는 신의 역사적 근원과 혈연적 계보를 시공간의 좌표 위에서 서사적으로 노래하는 것으로서, 한국신화의 본디 성격을 잘 나타내는 한국신화다운 문화유산이다. 구체적으로 본풀이는 어떤 내용을 노래하는가. 곳에서 노래되는 본풀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본풀이는 단순히 신의 내력담을 구연하여 신을 청배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곳의 서두에 천지조판(天地肇判)의 과정을 노래한다.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초감제’라 하고, 육지에서는 흔히 ‘지두서(指頭書)’라 한다.

지두서는 천지가 개벽된 뒤에 한국의 산과 강이 형성되고 고조선 건국 이래 조선왕조까지 우리 역사의 흐름이 통시적으로 노래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곳판의 주소와 상황을 공시적으로 노래하며, 여러 무신들을 청배하여 좌정시키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태초의 천지개벽 상황에서부터 지금 현재 상황까지 노래하는 통시적인 내용과, 우주

20) 玄容駿, 같은 책, 52~53쪽.

의 천문지리와 굿판의 현주소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공시적인 내용이 함께 노래됨으로써, 굿을 하는 현장의 시공간적 좌표가 분명해진다.

제주도 초감제는 지두서보다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초감제에서 노래되는 ‘베포도업침’은 천지개벽신화로서 천지혼합의 혼돈에서 하늘과 땅이 갈라져 천지가 열리는 과정을 노래한다. 이 본풀이에서 우주 생성은 음양론에 바탕을 두고, 우주 구조는 천지인 삼재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우주론이 잘 드러나 있다.²¹⁾ 이어서 구연되는 천지왕본풀이는 천지왕이 낳은 쌍둥이 형제가 해와 달을 조정하고 이승과 저승을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하는 과정을 노래한다. 인간세상을 다스리는 시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어지고 선과 악이 생겨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²²⁾ 그러므로 세계의 두 차원과 인류의 선악에 관한 유래까지 이야기하는 셈이다.

이어서 ‘날과 국섬김’을 하고 ‘집안연유담음’을 하는데, 현실계의 인간이 이룩한 나라의 역사를 구연한다. 굿하는 장소와 시간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굿을 하는 사연과 이유를 고한 다음에 신의 강림을 기원하는 것이다.²³⁾ 그러고 보면 초감제는 지두서와 전체적인 구조가 같다. 태초의 천지개벽 순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역사가 흘러와 지금 굿을 하는 순간까지 통시적인 내력과, 천지일월의 우주 구조에서 굿판의 현장까지 공시적인 위치가 분명하게 밝혀진다.

따라서 큰굿의 본풀이 내용은 지금 여기의 시공간까지 구체적으로 노래한다는 점에서 고대 이야기로 끝나 버리는 기존의 신화와 크게

21) 『韓國 神話의 敘事構造와 世界觀』, 『說話文學研究』(上),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88~93쪽에 자세하게 다루었다.

22) 김현선,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比較民俗學』 28, 比較民俗學會, 2003, 241~249쪽에 두 본풀이의 내용이 잘 분석되어 있다.

23) 김현선, 위의 글, 242쪽.

다르다. 항상 지금 여기의 상황까지 노래하는 까닭에 곳을 하는 시기와 장소, 사정에 따라 말미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한 편의 서사적 구조물로 완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곳판의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더 보태지고 달라지는 것이 본풀이의 역동적 가변성이다. 곳을 하는 상황에 맞게 축적된 역사와 변화된 장소를 반영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역동성이 굿문화 속에서 전승되는 본풀이의 살아있는 모습이자 한국신화다음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본풀이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본풀이의 역사적 서사의 마지막 지점이 늘 현재 상황이라는 사실이며, 둘은 본풀이를 통해 인식하는 세계관이 시공간적으로 크게 열려 있다는 사실이고, 셋은 우리 신화유산이 매우 풍부하며 신화문화가 지금까지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신화유산부터 보면, 본풀이를 통해서 노래되는 신화에는 천지개벽신화와 인류시조신화, 일월조정신화, 인세차지신화 등 다양한 신화가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 신화가 한갓 서사문학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굿문화 속에 실제 기능을 하면서 살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풀이를 신화문화의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한국에는 천지창조신화나 인류시조신화, 죽음의 신화와²⁴⁾ 같은 기본적인 신화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거나,²⁵⁾ 그래서 신화문화 유산이 아주 빈곤한 것으로²⁶⁾ 간주되어, 민담에서 그러한 신화적 요소를

24) 제주도의 이공본풀이는 죽음의 신화이다.

25) 崔南善, 『朝鮮의 神話』,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編, 『六堂崔南善全集』 5, 玄岩社, 1973, 17쪽. “우선 자연신화에 붙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천지개벽의 이야기도 없고, 홍수 난리 치르는 이야기도 없고 (일부 줄임) 대체로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신화는 조선에 없다 하여도 가합니다.”

26) 金烈圭, 『韓國의 神話』, 一潮閣, 1976, 8쪽. “한국신화가 오늘날 세계의 개벽과 종말, 인간의 창생(創生)과 죽음에 관한 신화를 못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불행히도 신화에 있어서도 가장 원천적인 것이 결실(缺失)되어

찾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적 한국신화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나는 지두서나 초감제에서 구연되는 본풀이를 창세신화라는 하나의 신화로 다루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자칫 창세신화 유형 한 편만 있고, 천지개벽신화나 인류시조신화, 물과 불의 신화, 일월조정신화 등 다양한 신화의 유형들은 없는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풀이는 여러 유형을 이어서 부르는 까닭에 ‘창세가’라 묶을 수 있지만, 천지개벽신화의 ‘베포도업침’과, 일월조정 신화 및 인세차지 신화를 담고 있는 ‘천지왕본풀이’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천지개벽신화라 일컬은 베포도업침은 독립적인 유형(type)으로서 한편의 신화를 이루는 유형적 서사 수준이어서, 화소 차원의 신화소(mytheme)라 하기 어렵다. 천지왕본풀이에 포함되어 있는 신화들도 마찬가지로이다.

비록 하나의 본풀이 속에서 이어져 구연되어도, 서사적 내용에 따라 독립된 유형을 분별해야 신화의 유형들이 제대로 드러난다. 그것은 마치 굿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 여러 거리의 작은 굿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전체가 하나의 굿이면서 굿을 이루는 작은 굿도 하나의 굿이다. 따라서 굿의 전체적인 유기성과²⁷⁾ 부분적인 독자성을 함께 인정해야 굿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전승하는 세계 기원 신화는 천지‘창조’ 신화가²⁸⁾ 아니라 천

있다는 그런 허전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7)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306쪽에 제주도 굿의 전체 과정을 유기적 체계로 도식화해 두었다.

28) 이수자, 위의 책, 401쪽에서는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를 모두 천지창조신화 또는 천지창생신화라 하여, 천지개벽신화로서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었다. 154쪽에서 “베포도업침이야말로 우리민족이 창안해낸 천지창조신화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하여 천지창조신화의 존재를 인정하는 논의로는 적절한 표현이되, 우리민족 신화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에는 ‘천

지·개벽' 신화로서, 천지창조 신화의 창조론과 다른 진화론적 개벽론을 펴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적 인식을 온전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도 '천지개벽신화'라는 유형적 인식과 명명이 필요하다.²⁹⁾ 따라서 본풀이에서 노래되는 여러 유형의 신화를 창세신화의 한 신화소로 분석할 것이³⁰⁾ 아니라, 독립적인 신화로 인정하고 유형별 신화론을 더불어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³¹⁾

본풀이로 구연되는 천지개벽신화의 세계관은 세계화 시대에 말하는 세계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 21세기의 세계화는 기껏 세계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로 지구촌(globalization)을 들먹일 따름이다. 그러나 천지개벽신화에서는 광대한 우주천지를 두루 세계로 끌어들인다. 하늘과 땅은 물론 해와 달, 별까지 끌어들여 공시적인 우주관을 펼칠 뿐 아니라, 태초의 우주에서 지금 여기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가 하면, 곳이 전개됨에 따라 미래의 세계까지 전망한다.

하늘과 땅도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간적으로 끊임없이 확대되어 있다. 우리는 하늘을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지만, 천지개벽신화에서 하늘은 수 없이 많다. 세계관 또는 우주관이 현대인들의 인식 수준을 훌쩍 넘어서 있다.

하날은 어떤 것이 하날이나
 청청 맑은 청하날이요
 잉은이도 삼하날 지하에도 삼하날 지자도 삼하날
 삼십삼천구천서른세하날, 이것이 하날이외다.³²⁾

지개벽신화'라고 해야 더 적절할 것이다.

29) 『韓國 神話의 敘事構造와 世界觀』, 72~73쪽.

30)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40~41쪽.

3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편, 『고대 신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진화론적 자연관』, 『민속연구』 8, 민속원, 1998, 243~277쪽 및 『韓國 神話의 敘事構造와 世界觀』, 93~96쪽 등에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32)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上), 大阪屋號書店, 1937, 371쪽. 표기법

하늘은 천지인 3재의 하나이자 근본이다. 그 하늘이 다시 3재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이 크게 셋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하늘 셋이 다시 셋으로 분화되어 있다. “하늘 위에도 세 하늘, 땅 아래도 세 하늘, 땅 위에도 세 하늘”이 있다.³³⁾ 이렇게 셋으로 계속 분화하여 결국 ‘삼십삼천구천서른세하날’이 있다. 3의 프렉탈 현상을 이루며 하늘은 무한하게 존재하는 것이다.³⁴⁾

하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이다. 땅도 이미 땅 아래위로 나누어 지상세계와 지하세계를 함께 땅의 세계로 인식한다. 지상세계나 지하세계나 하늘이 셋이라면 땅도 셋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상세계를 다시 산과 물의 세계로 나눈다. 땅의 세계도 3의 프렉탈 현상을 이루고 있다. 우주 공간의 인식은 물론 지구촌의 인식도 더 다원적이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천지개벽 신화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중국 중심의 화이론적 세계관이나, 지중해 중심의 르몽드(Le Monde)가 뜻하는 세계인식을 넘어선다. 세계화를 표방하며 세계 각국을 아우르는 지표 차원의 현대적 세계인식보다도 한층 폭넓다.

본풀이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겪는 당대의 지구촌에 한정되지 않는다. 태초에 천지가 개벽되던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세계까지, 세계는 통시적으로 지속되며 그때마다 다른 세계를 이룬다. 본풀이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세계를 통시적으로 다루며 우주적 세계관과 함께 역사적 세계를 포괄한다. 따라서 공간적 세계인식의 다층적 확장에 머물지 않으며, 시간적 세계인식까지 장기지속의 역사성을 지니며 무한하게 확장되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주론적 세계가 공간적으로 여기의 현장과 연관되어 있고, 또 과거와 현재, 미래의 통시적 세계 또한 지금 여기 본풀

은 원래 자료대로 따르되,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만 고쳐서 옮겨 놓았다.

33) 김태곤 외, 『한국의 신화』, 시인사, 1988, 207쪽.

34) 『韓國 神話의 敍事構造와 世界觀』, 107쪽.

이하의 사람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무한한 공간적 세계와 역사적으로 지속되며 변화하는 세계가 지금 우리의 삶과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세계인식이 중요하다. 그러한 우주와 세계는 하나이다. 민족과 국가로 분화되어 있지 않다. 우주 차원의 유기적 세계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의 본향이다. 그러므로 본풀이는 자민족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기존의 신화와 다른 세계관을 지녔다. 특정 공간이나 특정 시간의 세계가 아니라 모든 시공간을 하나의 유기적 실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본풀이의 형식도 흥미롭다.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을 이루고 있다. ‘성주본향이 어드메냐/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일레라’와 같이, 천지개벽신화에서는 ‘어떠한 것이 천지혼합입니까?’, 또는 ‘어떠한 것이 개벽이뇨?’ 하고 질문한다. 그러면 ‘혼합한 후에 개벽이 제일입니다’, 또는 ‘하늘과 땅이 각각 갈라서 개벽입니다’ 하고 제각기 대답한다. 한 마디로 본풀이는 문답풀이라 할 수 있다. 질문은 모두 근원적이고 신화적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질문에 따라 천지혼합을 설명하고 개벽도 설명하며 인류시조도 설명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삼국유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저술된 『제왕운기(帝王韻紀)』에는 단군신화가 본풀이 양식처럼 문답풀이 양식의 주석으로 인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첫 문장이 “처음에 누가 나라를 개창하고 풍운을 다스렸는가? 제석의 손자로서 이름을 단군이라 하는 분이다...”³⁵⁾(『본기(本紀)』에 이르기를 상제 환인에게 서자가 있었는데)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본기』에서도 환인이 “누가 삼위태백에 내려가 홍익인간의 뜻을 펼치겠는가?”³⁶⁾ 하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본풀이의 문답 양식과 상당

35) 『帝王韻紀』卷下 前朝鮮紀, 東國君王開國年代并序. “初誰開國啓風雲 釋帝之孫名檀君(本紀曰 上帝桓因有庶子 …).”

히 닮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단군신화의 이본으로 『제왕운기』의 단군신화를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고 『본기』의 기록만 끌어온다. 단군본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풀이가 왜 문답풀이처럼 대화체로 전승되는가. 대화체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양식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 하나는 대화체는 한결같이 현재형으로 이야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풀이는 과거형으로 이야기되는 예사 설화와 다르다. 둘은 대화체는 극적 형식을 이룬다는 것이다. 희곡은 모두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대화체는 극적 제시의 효과를 지닌다. 주술적으로는 굿에서 신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셈이다. 이를테면 가톨릭의 미사도 같은 양식이다.

사제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신자 : 또한 사제와 함께-!

사제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신자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미사에서도 사제와 신도들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미사의 현장에 재림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굿판에서 신이 내린 경우에도 이와 같다. 무당과 신이 주고받는 대화 형식인데, 주로 무당이 묻고 신이 답을 하는 문답형식이다. 신이 굿판에 좌정해 있는 현상을 극적 제시의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굿에서 극이 발생했다는 연극의 제의기원설은 이런 시각에서 설득력을 지닌다.

본풀이의 질문에서도 이미 천지창조신화와 다른 개벽신화로서 특징이 드러난다. ‘어떠한 것이 개벽이뇨?’ 하고 천지혼합의 상황에서 개벽을 묻는다. 어디서도 천지창조를 묻지 않는다. 인류시조신화에서

36) 謂曰, “下至三危太白 弘益人間歟.”

도 ‘사람이 생길 적에 어디서 생겼는가?’ 하고 묻는다. ‘누가 만들었는가?’ 하고 창조의 주체를 묻거나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고 창조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겼는가?’ 하고 사람이 생겨난 공간만을 묻는다. 사람이 자력적으로 생기는데, 다만 그 장소를 묻는다. 그러므로 우리 신화에는 창조의 주체로서 조물주가 등장하지 않는다.

하늘에서 금별레와 은별레가 내려와서 사람으로 변하거나, 천지 압록산의 흙이 모여서 사람이 된다. 금별레 은별레도 해와 달로 음양을 나타내고, 천지는 하늘과 땅, 압록산은 강과 산으로서 음양을 이루는 실체이다. 따라서 우주의 형성이 음양론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인류시조도 음양론에 의해 출현한다. 그러므로 인류시조신화에서 하늘과 땅, 강과 산이 교섭하여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음양론적 우주 형성론에 입각한 천지개벽신화와 같은 일관된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³⁷⁾

3. 두 본풀이로 이루어진 단군신화의 정체

곳의 시작을 여는 지두서나 초감제의 본풀이는 세상의 근본 내력 곧 우주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풀이해줄 뿐 아니라 태초의 시작과 우주의 구조, 인류의 출현과 같은 근원적인 의문을 풀이해 준다. 곳을 할 때마다 태초의 우주와 나라의 역사, 그리고 지금 여기의 문제를 더불어 풀이해 주는 것이다. 나라곳을 할 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나라곳에서도 여전히 태초의 우주와 나라의 역사, 지금 여기의 상황까지 노래하게 마련이다.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우주와 인류가 하나이자 유기체라는 것을 말한다.

37) 『韓國 神話의 敘事構造와 世界觀』, 99쪽.

단군신화의 본디 모습은 나라곳에서 구연된 단군본풀이의 긴 노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나는 기록에는 그러한 자취가 남아 있지 않다. 나라곳의 본풀이가 고탄에서는 사제왕(priest king)에 의해 고탄의 형식에 따라 노래되지만, 세간에서 이야기될 때에는 이야기 거리가 될만한 서사적 내용만 구연되게 마련이다. 특히 문헌에 기록될 때에는 본풀이로서 전후 맥락은 잘려나가고 중요한 줄거리만 정리될 수밖에 없다. 구어로 전승되던 노래와 이야기가 한문으로 기록될 때는 더욱 축약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 본풀이도 채록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긴 하나, 초감제의 전후 맥락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³⁸⁾ 그러므로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위서(魏書)』나 『고기(古記)』의 기록 또한 단군본풀이의 실제 상황을 실감나게 기록하기 어렵다.

『위서』에서는 단군왕검의 역사와 도읍지, 고조선의 건국시기를 아주 간략하게 밝혀두었을 따름이다. 단군본풀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주인공의 이름, 역사적 시기, 지리적 위치, 나라이름만 기록으로 남겼다. 일종의 키워드만 기록한 셈인데, 구전되는 본풀이를 듣고 그 내용을 적었다고 하기 어렵다. 환웅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단적인 증거이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은 단군이 세운 ‘고조선’을 한민족의 가장 첫 국가로 알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기원을 말하는 건국본풀이로 보면, 단군의 고조선본풀이만 별도로 기록한 것이어서 환웅의 신시본풀이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환웅이 세운 신시의 역사는 알지 못했던 셈이다. 그런데 『고기』에서 인용한 내용은 환웅과 단군의 내력을 모두 기록해 두었을 뿐 아니라, ‘단군신화’라 일컬을 만큼 본풀이로서 성격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

『고기』는 중국의 『위서』에서 보이는 단편적인 사실 중심의 건조한 서술과 달리, 단군왕검과 고조선의 본향풀이를 제법 적극적으로 하

38)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자료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본향을 하늘나라에서 시작하는 것도 본풀이 일반의 전통을 잘 이었다. 성주풀이도 성주의 본향을 현실 세계의 ‘안동 제비원’을 본향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조본이 어데메요 천상 옥계가 본일네라”라고³⁹⁾ 하여 천상에서 본향을 찾는다.⁴⁰⁾ 따라서 단군신화가 본풀이의 구조를 잘 갖추고 있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풀이가 구연되는 큰곳의 구조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주적 시공간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존재론적 차원, 그리고 자연과 지리 및 역사적 차원으로 전개된다.⁴¹⁾ 단군본풀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에 이른다.

- ① 하늘나라 천제인 환인의 지차 아들 환웅이 인간세상을 굽어살피며 서로의 뜻을 헤아릴 때는 우주적 시공간 차원의 이야기이다.
- ② 환웅이 천부인 3개를 가지고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를 베풀고 천왕이 되었다는 것은 존재론적 차원에 해당된다.
- ③ 환웅천왕이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인간사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인간세상을 다스리고 이치로서 교화하는 대목은 자연과 지리 및 역사적 차원에 속한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환웅의 신시 내용만 하더라도 큰곳의 구조와 일치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본풀이로서 또는 서사구조로서 온전한 독립성을 지닌다. 천상에서부터 하강한 환웅의 본향을 충분히 밝히면서 환웅이 인간세상에 내려와 사는 역사적 과정과 지리적 위치, 그리고 천왕으로서 인간사를 두루 다스리고 교화하였다는 현재 상황까지 잘 풀이하고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환웅본풀

39) 金泰坤, 『韓國巫歌集』 4, 集文堂, 1978, 77쪽, 1976년 2월 23~26일, 김석출 무격, 55, 영일지역 무가 ‘성주굿’.

40) 이 무가집에 실린 성주 본향을 풀이한 성주풀이 10편 가운데 7편은 안동 제비원이 본향이고, 3편은 천상세계가 본향이라 하였다.

41) 이수자, 같은 책, 321~322쪽에 제주도 큰곳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두었다.

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적인 근거는 “환웅이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와 자리를 잡고 ‘신시(神市)’라 이르는 국가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분이 바로 환웅천왕[雄率徒三千 降於太白山頂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이라는⁴²⁾ 사실이다. 환웅이 ‘신시’라는 성읍국가를 세우고 천왕 노릇을 했을 뿐 아니라, 곡식과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다스렸다는 것으로서, ‘환웅본풀이’ 또는 ‘신시건국신화’ 또는 ‘신시시조신화’라 일컬을 만한 요건을 충분히 갖춘 셈이다. 그러므로 환웅본풀이는 ‘신시’ 건국시조신화라 할 만하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상 환웅본풀이에 곁들여져 있는 단군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나는 단군신화를 다루면서 진작부터 “왜 환웅신화가 아니고 단군신화인가?”⁴³⁾ 하는 의문을 품었다. 환웅이 처음부터 단군신화의 이야기 주류를 이루고 있는 까닭이다. 한 마디로 “단군신화의 주역은 단군이 아니라 환웅이다.” 주인공의 활동상황이나 이야기에서 차지하는 서술의 비중에서도 단연 환웅의 역할과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⁴⁴⁾ 그러므로 환웅본풀이는 환웅신화이자⁴⁵⁾ 신시건국신화로서, 단군이 세운 고조선 이전에, 환웅이 세운 ‘신시’라는 한 민족 초기국가의 정체를 밝혀주는 본풀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단군신화로 일컬어진 『고기』의 기록은 환웅본풀이와 단군본풀이의 묶음이라 할 수 있다. 일연도 『삼국유사』에서 ‘고조선’ 또는

42) 『三國遺事』 卷1, 紀異 古朝鮮.

43) 「단군신화에 던지는 몇 가지 질문」, 『文化財』 21, 文化財管理局, 1988, 207~223쪽. 이 글은 『민족문화의 논리와 의식』, 지식산업사, 1992, 125~159쪽에 재수록되었다.

44)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 132쪽.

45)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2, 202~204쪽에서 흔히 단군신화라고 하던 내용을 환웅신화와 단군신화로 분리하여 일컬었다.

‘왕검조선’이라는 항목으로 묶어서 기술해 두었다. 왜 두 본풀이를 한꺼번에 기록해 두었을까. 구연되는 본풀이에도 둘 이상의 본풀이가 함께 노래되거나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를테면 천지왕본풀이나 본향당본풀이, 성주풀이 등에서도 그러한 양상들이 두루 보이므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초감제에서 창세가를 노래하며 천지개벽과 인류시조에 관한 본풀이를 노래하는가 하면, 천지왕본풀이에도 ‘일월 조정’ 본풀이와 ‘인세차지’ 본풀이가 더불어 있다.

환웅의 신시시대 나라굿에서는 환인의 천상세계에서부터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하강하여 신시를 세우고 인간세상을 다스리는 당시 상황까지 본풀이를 하게 마련이다. 그것이 신시시대 나라굿에서 구연되는 환웅본풀이이다. 그러나 단군의 고조선시대 나라굿 본풀이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시대가 바뀌고 도읍도 바뀌었을 뿐 아니라 나라도 신시에서 조선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조선의 왕검인 단군 본풀이를 덧붙여 노래해야 한다. 단군본풀이를 하려면 당연히 그 부모인 환웅의 근본내력을 함께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고기』의 고조선기록은 환웅본풀이를 포함한 단군본풀이로서 단군시대 말기 이후에 형성된 본풀이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단군신화의 2원성은 성주풀이의 두 본풀이 존재양상과 구연상황을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주풀이도 천상옥계를 본향으로 하는 것과, 안동 제비원을 본향으로 하는 것이 함께 전승되는 까닭이다. 마치 천상옥계를 본향으로 하는 성주풀이는 환웅본풀이처럼 성주신에 해당되는 신격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나무를 심고 집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 환웅이 인간세상에 머물면서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이치로서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과 같다.

안동 제비원을 본향으로 하는 성주풀이는 구체적으로 집터를 잡고 성주목을 베어서 집을 짓고 성주를 좌정시킨 뒤에 가정의 번영을 비

는 축원풀이까지 한다. 천상계에서 본향을 찾는 성주풀이와 달리, 현실세계에서 본향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집과 가정사의 실제 문제를 노래한다. 실제 본향을 알 수 없는 천상계가 아니라, 태백산 신단수처럼 안동 제비원의 소나무이다. 게다가 두 유형의 성주풀이는 함께 이어서 구연되기도 하고 따로 구연되기도 한다.⁴⁶⁾ 그러므로 성주풀이는 둘이면서 하나이다.

둘인 것은 두 본풀이가 유형적 독자성을 지니며 제각기 구연되는 까닭이며, 하나인 것은 두 본풀이가 이어서 하나의 성주풀이로 구연되기도 하는 까닭이다. 단군본풀이도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다. 이처럼 여러 본풀이들이 이어서 구연되는 것은 본풀이의 두 가지 성격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구비전승의 이치 때문이다. 구비문학은 전승과정에 누적되고 적층되어서 최종본이 전승되는 까닭이다. 둘은 본풀이의 이치 때문이다. 본풀이는 후대로 갈수록 전대의 본풀이까지 구연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가 바뀌면서 후대에 부르는 본풀이는 이전 시대의 본풀이를 부르지 않으면 제대로 본향을 노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풀이는 일종의 구비역사로서 늘 태초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덧붙태어 나가는 것이다.

본풀이는 둘 이상의 본풀이가 서사적으로 이어서 마치 하나처럼 노래될 수도 있고, 베포도엮침과 천지왕본풀이처럼 내용이 이원적으로 전승되면서 제각기 독립적으로 노래될 수도 있다. 성주풀이도 천하궁과 같은 천상계를 본향으로 풀이하는 것과, 안동 제비원처럼 지상계를 본향으로 풀이하는 것이 이원적으로 존재하듯이, 다른 신화들도 천상계와 지상계 또는 초월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성경이 예수 탄생 이전의 구약과, 그 이후의 신약으로

46) 『안동문화와 성주신앙』,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2, 443~453쪽 참조.

이원화되어 있는 것과 같다. 단군본풀이에서 천제의 아들이 천상계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환웅이 있고, 인간으로서 현실세계에서 태어난 단군이 있는 것처럼, 주몽본풀이도 천제의 아들이 천상계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해모수가 있고, 인간으로서 현실세계에서 태어난 주몽이 있다.

본풀이의 논리로 보면, 북부여시대에는 해모수본풀이만 노래되다가, 고구려시대에 와서 주몽본풀이까지 노래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박혁거세 신화에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박혁거세 본풀이 서두에 박혁거세를 시조왕으로 추대한 6촌촌장의 본풀이가 서술되어 있다. 처음에는 하늘에서 하강한 6촌촌장 본풀이만 구연되다가, 신라가 건국되면서 박혁거세 본풀이가 덧붙태어 구연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자취가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서 남아 있다. 촌장본풀이에 이어 박혁거세본풀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석탈해와 김알지 후손들에 의해 왕권의 혈통이 바뀌면서 박혁거세 본풀이에 이어서 석탈해본풀이와 김알지본풀이도 차례로 구연되었을 것이다. 김알지본풀이는 신라 김씨 왕권이 확립되면서 비로소 구연되었을 터인데, 그러한 흔적 또한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알지신화는 그 자체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김알지 탈해왕대’⁴⁷⁾ 기록된 것은 물론, 석탈해신화 다음 항목에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본풀이인 김알지신화는 탈해가 시림에 가서 금궤를 열어 김알지를 발견하고 혁거세의 고사에 따라 이름을 짓고 태자로 책봉하는 내용으로 서술되었다. 그 이전의 본풀이 주인공인 박혁거세와 석탈해가 김알지신화에 모두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알지본풀이의 본디 구연상황은 김알지 이전에 석탈해, 그리고 그 이전에 혁거세의 내력이 함께 노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혁거세와 석탈해의 내력에 김알지의 내력이 보태어 김

47) 『三國遺事』 卷1, 紀異 金閼智·脫解王代.

알지본풀이가 노래되었다는 말이다. 가장 후대에 형성되고 노래되었던 김알지본풀이에는 박혁거세와 김알지의 행적이 모두 갈무리되어 있는 사실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박혁거세, 석탈해, 김알지 신화를 서로 무관한 신화로 해석하고 제각기 다른 북방민족들의 신화인 것처럼 전래설을⁴⁸⁾ 펼 것이 아니라, 신라신화를 모두 상호관련성 속에 유기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본풀이의 논리로 보면, 한 신화처럼 기록된 자료도 내용에 따라 여러 신화로 나누어 보고, 여러 신화처럼 별도로 기록된 자료도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서 하나의 본풀이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신라 신화만 하더라도, 시림의 알지가 탈해 없이 왕실의 태자로 거두어질 수 없고, 혁거세 없이 알지가 이름을 얻을 수 없으며, 혁거세 또한 6촌 촌장 없이 신라의 시조왕에 오를 수도 없다.⁴⁹⁾ 시조왕이 여럿이므로 다른 나라 건국시조신화에 비하여 한층 복잡할 따름이다. 그러나 천상계의 인물이 지상으로 하강하여 지도자가 된다는 세계관적 인식은 한결같다.

신라 건국신화의 가장 첫 본풀이인 6촌촌장신화가 보기이다. 6촌의 시조들은 모두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와서 6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환웅본풀이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박혁거세 신화만 다루고 6부촌장 신화는 다루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⁵⁰⁾ 그것은 마치 단군신화에서 환웅신화, 주몽신화에서 해모수 신화를

48) 김병모, 『금관의 비밀 - 한국 고대사와 김씨의 원류를 찾아서』, 푸른역사, 1998, 167쪽. 이를테면 석탈해는 대장장이를 뜻하는 몽골어 탈한을 근거로 몽골족, 김알지는 금을 뜻하는 알타이어 ‘알타이’를 근거로 알타이족의 도래인으로 해석하는 연구들이다.

49) 『맥락적 해석에 의한 김알지신화와 신라문화의 정체성 재인식』, 『比較民俗學』 33, 比較民俗學會, 2007, 579쪽.

50)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민속원, 2006, 201~202쪽에서 이 문제를 단군신화와 견주어 자세하게 다루었다.

별도로 다루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를 지닌다. 그러므로 성주풀이를 두 유형으로 나누어 인식하듯이,⁵¹⁾ 단군신화는 물론 주몽신화와 박혁거세 신화도 두 신화로 나누어 인식해야 본풀이의 실상에 맞게 신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주몽본풀이에서 해모수본풀이 또는 고구려건국신화에서 부여건국신화를 분별해서 다루어야 부여의 건국시조로서 해모수가 별도로 주목되는 것은 물론, 고구려 이전의 부여국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며, 우리 신화유산도 더 풍부하게 조명할 수 있다.⁵²⁾

고구려 건국 이전에는 당연히 부여 건국시조로서 해모수본풀이만 전승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뒤에 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강성해지면서 북부여와 동부여가 고구려에 편입되자, 해모수본풀이도 주몽본풀이에 귀속되어 전승되기에 이른 것이다. 환웅본풀이가 뒤에 단군본풀이에 귀속되어 하나의 본풀이처럼 전승된 사실과 같다. 그러므로 고조선 이전에 전승되었을 신시의 환웅본풀이를 별도의 건국신화로 다루면, 상고시대 민족문화의 정체가 새롭게 밝혀질 수 있다.

Ⅲ. 민족문화의 원형과 정체성

1. ‘신시문화’에서 찾는 고조선문화의 뿌리

엄밀하게 말하면 단군본풀이는 환웅이 세운 신시 다음 단계의 본풀이로서 고조선 건국본풀이이자, 또한 산신본풀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여차 저차하여 단군왕검이 출생하여 평양성에 도읍하여 비로소

51) 『안동문화와 성주신앙』,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379~405쪽 참조.

52)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78~80쪽에 왜 해모수신화 또는 부여신화를 주몽신화나 고구려신화와 분별해서 다루어야 하는 까닭을 밝혔다.

조선이라 칭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뒤에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단군본풀이를 건국신화로만 여기는데, 한 인물이 태어나서 역경을 이기고 일정한 과업을 이룬 뒤에 신으로 좌정하는 것이 무신이나 당신의 본풀이 구조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군신화는 산신본풀이로서 산신신화에 해당되기도 한다.⁵³⁾

고대부터 산신신앙이 국가제의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세간의 민속신앙에도 산신신앙이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상위의 신앙으로 전승되는 것은 단군이 산신으로 좌정한 단군본풀이의 문화적 전통이 지속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풀이를 다루는 시각에서 우리 신화를 보면, 보이지 않던 한국신화다운 정체를 다양하게 포착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되는 것은 ‘신화’에 대한 인식이다. 『고기』의 ‘고조선’ 기록이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단군신화’로 규정된 사실을 근거로 고조선의 역사를 ‘만들어진 역사’, 또는 ‘실체 없는 고조선’으로 인식되어 국사교과서에서조차 배제되었다. ‘단군신화’라는 규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먼저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 상상의 이야기라는 신화의 허구적 인식 문제이고, 다음은 고조선신화가 아니라 단군신화라고 하는 고조선 부정의 논리이다. 결국 ‘단군신화’라는 규정은 고조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빌미가 되고 말았다. 실증사학의 구실 아래 역사로 인정할 수 없는 허구로 규정된 개념이 바로 ‘신화’라는 굴레이다.

그러나 본풀이는 본향을 묻고 역사적인 내력을 현재상황까지 풀어내는 신성한 노래로 자리매김된다. 태초의 우주사에서 인류사, 국가사, 지역사는 물론,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 선악의 문제까지 인류사

53) 김종성 편, 『한국인의 산 숭배 전통과 산신신앙의 전승』, 『산과 우리문화』, 수문출판사, 2002, 18쪽.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신화이기도 하지만, 사실 산 신신의 기원을 말한다든 점에서 산신신화이기도 하다.”

회의 근본 내력을 풀어내는 구비전승의 역사이자, 집단적 무의식으로 전승되는 총체적 세계 인식이다.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짚고 가야 할 우주사의 내력과 인류사의 근본을 찾는 풀이이다. 그러므로 본풀이는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총체적 세계의 풀이이자, 사실의 실증을 넘어서는 세계관적 역사인식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문제는 단군신화를 으레 고조선의 건국신화로 여기는 상투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허구적 신화관과 고조선건국신화라는 고정관념은 모두 일제가 만들어낸 식민사학의 잔재이다. 식민사학의 굴레 탓에 고조선 이전에 형성된 성읍국가 신시의 존재와 환웅시대의 신시문화에 관해서는 아예 문제의식조차 없게 되었다. 그리고 신시문화를 마치 고조선문화인 것처럼 오해하기에 이르렀다. 환웅과 신시를 기록하지 않은 『위서』의 내용도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데 일조한 셈이다.

더 문제는 신시문화와 고조선문화가 고조선 이래 지금 여기 우리들의 생활세계에까지 그 문화적 유전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갓 고조선의 옛문화를 추론하는 과거지향적 연구에 머물거나, 한갓 상고사 자료로 해석하는 데 만족하고 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군신화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려면, 고조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고사의 원류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지금의 현실문화 속에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 고조선문화의 전통까지 실감나게 해명할 수 있어야, 단군신화를 본풀이답게 푸는 셈이다. 그러므로 과거 지향의 특정 시대사 중심의 신화론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태초에서 비롯되는 공시적인 세계인식과 통시적인 현실인식의 본풀이론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고조선신화에서 해방되려면, 먼저 환웅본풀이와 단군본풀이 또는 신시건국본풀이와 고조선건국본풀이로 분별해서 인식하는 데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이른바 단군신화라고 하는 『고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본향과 정체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 두 본풀이로 나누어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적 깊이와 지리적 무대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 현재 사학계에서는 고조선의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학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분별해서 보면 고조선은 물론 환웅이 세운 신시의 역사적 실체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환웅본풀이를 근거로 신시건국신화를 별도로 다루게 되면, 단군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도 도움을 평양성에 옮겨서 ‘조선’이라 일컫기 전에는 ‘조선’ 이전의 성읍국가 ‘신시’를 다스렸을 가능성이 높다. 단군이 평양성에 도움을 하기 전에 직접 신시를 다스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왕인 환웅천왕이 다스리던 신시는 분명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고조선의 초기 무대는 평양성 일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태백산 지역이라 할 수 없다. 태백산 지역은 환웅이 세운 신시의 무대이자 신시의 중심지였다. 그러므로 고조선의 지리적 위치를 태백산에서부터 찾으려는 것은 처음부터 빗나갔다.

태백산 신단수 아래는 곧 환웅본풀이가 말하는 신시의 본향일 뿐, 결코 고조선의 본향은 아니다. 따라서 환웅천왕이 세운 신시의 시대와 무대,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의 시대와 무대를 시공간적으로 분별해서 포착하지 않으면, 우리 고대사 체계는 물론 고대문화 이해에 혼선을 빚게 마련이다. 환웅이 세운 신시시대에 이미 신단수와 같은 신수(神樹)사상이 뿌리내렸다. 마치 ‘황금의 가지’처럼 신단수가 곧 환웅의 성지이자 환웅의 상징이었다. 신단수는 하늘에서 신인이 하

강하여 머무는 신수이자 내림대이며 서낭목이다. 따라서 신단수를 성급하게 시베리아의 세계수 또는 유럽의 우주목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도 문제이다.

동신이 깃들여 있는 마을의 당나무처럼, 천왕이 깃들여 있는 신시의 당나무가 신단수이다. 신격이 깃들여 있는 까닭에 꿈과 범이 찾아와서 소원을 비는 나무인 것이다. 따라서 지구의 중심에서 하늘을 받치는 기둥으로서 우주목이나⁵⁴⁾ 지상의 샘을 하늘 위로 길어올리는 세계수의 기능과⁵⁵⁾ 전혀 다른 것이다. 신성한 나무 숭배로서 공통성만 지닐 뿐, 환웅시대의 신수사상은 나라나 고을, 마을 등 공동체의 수호신이 깃들여 있는 신단수이자 당나무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신단수나 당나무는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축으로서 세계의 중심 기둥’이거나 ‘뿌리가 지하 깊숙이 박혀 있는’ 우주목이라⁵⁶⁾ 할 수 없다.

환웅은 곧 신시의 정치적 지도자이자 신단수를 자신의 제의적 신성의 상징으로 삼는 사제자였다. 그것은 마치 사명당이나 최고운, 의상조사가 꽃아놓은 지팡이가 거목으로 자라서 생존의 징표 구실을 하거나 또는 신성한 인물의 상징 구실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범과 꿈이 환웅에게 빌 일이 있으면, 곧 신단수에 찾아와서 빌었던 것이다. 신단수는 곧 환웅이어서 때로는 『제왕운기』에서 인용한 ‘본기’의 기록처럼, 신단수의 이름을 따서 ‘단웅’이라⁵⁷⁾ 일컫기도 하였다.

54) 金烈圭, 『韓國의 神話』, 44~45쪽. “세계수는 세계를 떠받드는 기둥이다. 하늘이 내려앉지 않게 버티고 있는 나무. 땅이 가라앉지 않게 지탱해 주고 있는 나무로 이 나무가 있었기에 하늘과 땅, 세계와 우주는 잘 짜여진 조직체로서, 유기적으로 관련된 기관으로서 의식된 것이다.”

55) 김열규, 위의 책, 46쪽.

56) 박영은, 『B. 라스뿌찐의 『마쭈라의 이별』에 나타난 ‘우주목(宇宙木)’의 상징성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13, 세계문화비교학회, 2005, 97~122쪽 참조.

57) 『帝王韻紀』 卷下, 前朝鮮紀, “是謂檀雄天王也”.

신단수는 신의 서식처로서 사람들이 빌고 섬기는 대상이다. 따라서 곱네는 신단수를 찾아가 아이배기를 빌고, 그 결과 실제로 잉태하기에 이른다. 일종의 신성혼을 통해 단군을 낳는데, 달리 말하면 단군은 신단수의 아들이기도 하다. 신단수와 곱네의 신성혼과 단군의 잉태는 대홍수 신화에서도 이어진다. 손진태에 의해 보고된 ‘목도령’ 설화⁵⁸⁾ 노아의 방주 이야기처럼 대홍수 설화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선녀가 나무와 사랑하여 아기를 잉태하였으며, 그렇게 태어난 목도령이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보면 단군도 신단수의 아들로서 목도령이나 다름없는 존재인 까닭에 단웅으로 일컬지는 것이다.

목도령이나 단군의 부계는 현실적으로 나무라 할 수 있다. 목신의 감응에 의한 잉태이기 때문이다. 김알지가 시림에서 출현하는 것과 닮았다. 그렇다면 신수의 아들로 태어난 단군이나 목도령은 수조(獸祖)신화가 아니라 오히려 나무나 숲을 조상으로 하는 수조(樹祖)신화나 목조(木祖)신화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 고대문화 속의 신수는 우주목이나 세계수와 다른 인격적 존재로서 신의 서식처이자 건국시조 또는 인류시조를 생산하는 생명나무라 하겠다. 신라 금관의 세움장식이 모두 나무로 되어 있고 생명을 상징하는 곡옥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도 이러한 상징과 만난다.

환웅본풀이를 통해 신시문화를 독립적으로 분리해 보면, 홍익인간 사상도 단군의 사상이거나 고조선에서 비로소 수립된 이념체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한 내용은 모두 환웅본풀이에 갈무리되어 있는 것으로서 고조선이 아닌 신시의 이념이자, 단군이 아닌 환웅의 사상이었다. 단군은 부왕 환웅의 이념과 사상체계를 이어받았을 뿐이다. 단군시대만 하더라도 곰숭배의 맥(貊)족과 범숭배의 예

58) 孫晉泰,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6, 166~168쪽.

(濊)족이 있었는데, 환웅시대에는 민족개념도 민족의식도 없었다. 신시를 세운 환웅은 ‘홍익민족’이 아닌 ‘홍익인간’을 표방했다. 자민족의 이익을 추구한 민족중심주의가 아니라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인류의 이상을 추구한 것이다.

홍익인간에서 말하는 ‘인간’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세상’을 뜻하는 것이다. 인간을 곧 사람으로 새겨서 환웅이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세상’은 인간중심의 세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자연히 인본주의를 표방한 것이라는 해석도 잘못이다. 천상세계에서 환웅이 뜻을 품은 것은 ‘천하’의 세계로서 인간세상이다.⁵⁹⁾

홍익인간이 말하는 인간세상은 자연과 상대되는 인간사회가 아니라, 천상세상과 상대되는 천하세상으로서 지상세계를 말한다. 따라서 환웅이 뜻을 품은 인간세상은 인간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천상의 관념적 세계와 맞서는 현실세계로서 생태학적 총체로서 지상세계를 뜻한다. 자연히 단군신화의 인본주의적 인식에서⁶⁰⁾ 생태학적 세계인식의 전환이⁶¹⁾ 필요하다. 그러므로 천하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사상을 인간중심주의나 민족중심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일 뿐이다.

환웅의 신시시대에 이미 지상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이념이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한 이념이 어떻게 환웅에 의해 실현되었는가 하는 사실도 환웅본풀이는 생생하게 나타내

59) 『三國遺事』, 위와 같은 곳, “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60) 『단군신화에 던지는 몇 가지 질문』, 132~135쪽에서 천신인 환웅도 인간세상을 동경하고 동물인 곰과 범도 인간이 되기를 소망한 까닭에 환웅이 말하는 인간세상을 사람 중심의 세상으로 인식하고 논의를 했다. 실제로 단군신화의 세계를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61) 『단군신화를 보는 생태학적인 눈과 자연친화적 홍익인간 사상』, 『단군학연구』 9, 단군학회, 2003, 115~157쪽.

고 있다. 환웅천왕이 신시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보면 예사롭지 않은 까닭이다.

환웅은 무리 3천을 거느리며 신시를 다스렸는데, ‘풍백·우사·운사의 세 막료를 통솔하면서 곡식을 가꾸는 일에서부터 생명과 질병, 형벌, 선악 등 무려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고, 세상에 머물러 살며 사람들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 내용이 환웅본풀이의 끝부분이자, 환웅천왕이 신시국가를 다스리며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고조선의 세계관이나 단군사상으로 추구했던 홍익인간 이념은 사실은 환웅사상이자 신시시대의 이념이라 해야 마땅하다.

문화적 전통의 경우에도 환웅시대에 이미 두 가지 기본적인 생활양식이 틀지어졌다. 하나는 곡식을 가꾸는 농경생활이며, 둘은 일정한 공간에 머물러 사는 정착생활이다. 이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면서도 독자성을 지닌다. 농경생활을 필수적으로 정착생활을 요구하지만, 정착생활은 반드시 농경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목축을 통한 정착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웅본풀이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정착생활은 신단수 아래에 신시를 세웠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신단수와 같은 일정한 나무를 신수로 삼아 모듬살이를 시작한 것은 곧 정착생활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환웅은 늘 신단수를 배경으로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곶과 범이 환웅을 만나러 갈 때마다 으레 신단수를 찾아갔던 것이다. 환웅이 일정한 공간에 정착해 살았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은 ‘재세이화’이다. 신시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에 머물러 살면서 다스렸다는 말이다. 상대적으로 떠돌이 유목생활을 부정하는 뜻이다. 그러므로 정착문화의 전통은 이미 환웅시대에 확립되었던 셈이다.

농경생활은 한층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정착생활의 더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환웅이 다스리는 360여 가지 일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문제삼은 일이 주곡(主穀)이다. 농경을 관장하여 식량 생산을 지휘하고 감독했다는 말이다.⁶²⁾ 당시에 농업이 가장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풍백·우사·운사의 세 막료도 농경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환웅시대는 농경을 중요시한 농업사회였으며 본격적인 불박이생활이 이루어진 정착사회였다.⁶³⁾ 어느 부분에도 유목문화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누린 농경문화와 정착문화의 원형은 이미 환웅시대에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기록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북방 초원지역의 유목문화로부터 민족문화의 원형을 찾는 사람들은 고조선 이전부터 누렸던 농경문화와 정착문화의 전통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 근거를 유목민들의 수조(獸祖)신화에서 찾는다. 단군을 낳은 성모가 곰배[熊女]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근거이다. 그러나 단군본풀이를 마치 수조신화처럼 해석하는 것은 환웅본풀이를 인정하지 않은 까닭이다.

왜냐하면 단군은 환웅에 의해 태어난 인물이자, 부계혈통이 환웅 천왕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환웅본풀이가 단군본풀이의 바탕이자 뿌리를 이루기 때문이다. 천신신화인 환웅본풀이를 두고 수조신화라 할 수 없지 않는가. 환웅은 환인의 서자로서 수조신화는 커녕 신조(神祖)신화라 해야 마땅한 까닭이다. 단군본풀이를 그 자체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단군은 환웅의 부계를 이어받은 천신의 아들로서 천손신화라 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수조신화는 양이나 이리와 같은 동물에서 인간이 태어나거나, 인간인 여성과 짐승 사이에 인간이 태어나는 것에 한정되는 까닭이다.

62)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46쪽.

63) 윤내현, 『고조선연구』, 一志社, 1994, 141쪽.

그러나 단군은 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꿈네 또는 손녀(孫女)라고⁶⁴⁾ 하는 여인과 천신인 환웅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부계는 물론 모계도 동물이라 할 수 없다. 만일 꿈네도 짐승으로 여겨 수조신화라 한다면, 천마가 가져온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신화도 수조신화라 해야 할 것이며, 닭이 울음과 함께 출현한 김알지신화도 수조신화라 해야 할 것이다.

더 문제는 단군신화에서 꿈이나 범은 짐승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환웅의 재세이화 문화권 밖에 있는 부족집단을 뜻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인간이 되고자 했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 곧 농경문화와 정착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신시의 재세이화 문화에 편입되고자 하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꿈과 범은 사실상 꿈부족이자 범부족으로서 제각기 맥족(貊族)과 예족(濊族)을 나타낸다는 논의는 이미 널리 이루어진 터이다.⁶⁵⁾ 그러므로 단군신화를 두고 수조신화라는 전제로 북방의 유목문화 기원설을 펴는 것은 여러 모로 잘못되었다.

단군신화뿐 아니라 한국 건국신화의 뿌리를 모두 북방민족에게 있는 것처럼 해석한 연구도 있다. 고주몽 신화는 몽골족 계통, 수조신화는 통구스족 계통, 석탈해 신화 등 난생신화는 캄차카 반도 일대의 코리약족 계통의 신화로 해석하고, 이러한 신화를 전승한 지배집단의 혈연까지 몽골이나 통구스족, 코리약족에서 찾는다.⁶⁶⁾ 우리 민족의 신화창조력을 부정하는 것이자, 역사적 기록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64) 『帝王韻紀』에서는 熊女를 孫女라 하였다.

65) 慎鏞廈, 『檀君說話의 사회학적 해석』, 『설화와 의식의 사회사』, 문학과지성사, 1995. 『韓國民族의 形成과 民族社會學』, 지식산업사, 2001에 제수록. 뒤의 책 169~171쪽 참조.

66) 김화경, 『한국 신화의 원류』, 지식산업사, 2005.

유학자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 단군의 내력을 서술하고 “이런 까닭에 신라와 고구려, 남북옥저, 동북부여, 예와 맥은 모두 단군의 자손”이라고 했다.⁶⁷⁾ 따라서 고구려와 신라 신화를 단군의 후손이라 생각하지 않고 단편적인 신화 지식으로 북방민족의 도래설을 펴는 것은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왕운기』에 기록된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흔히 단군신화로 인용하며 『삼국유사』의 기록과 비교하는 내용을 이승휴는 ‘전조선기(前朝鮮紀)’라 하여 고조선 이전 시대의 본기(本紀)로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고조선 이후의 신라와 고구려, 옥저, 부여, 예맥 등 여러 나라 시대를⁶⁸⁾ 말미에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왕운기』의 기록은 고조선 이전의 신시대를 ‘전조선기’, 단군의 ‘조선기’, 단군조선 이후의 신라와 고구려 등의 ‘후조선기’까지 다루었다. 단군조선 전후의 시대구분을 적극적으로 인식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벌써 고조선 이전의 신시대를 구분해서 설정했다.

본풀이의 논리로 보면, 『삼국유사』의 단군신화가 신시건국시조를 노래한 천손신화로서 환웅본풀이에 고조선 건국시조인 단군본풀이가 시대구분의식 없이 하나의 본풀이처럼 덧붙여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왕운기』의 단군신화는 『삼국유사』의 두 본풀이를 축약해서 신는 데서 더 나아가 고조선 이후의 여러 나라 본풀이까지 덧붙여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주석으로 설명한 까닭에 대부분의 이야기를 ‘운운’이라 하여 생략하였으므로 서사적 내용이 자세하지 않을 따름이다.

하지만 단군의 고조선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두루

67) 『帝王韻紀』 卷下, 前朝鮮記. “檀君據朝鮮地域爲王 故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夫餘·濊與貊 皆檀君之壽也.”

68) 윤내현, 『한국열국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에서 이 시대를 열국시대 곧 여러 나라 시대로 설정했다.

이어서 계승관계를 분명히 밝혀 놓은 이승휴의 역사의식은 상당히 탁월하다. 이승휴는 『본기』의 본풀이를 인용하되, 일연처럼 고조선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살았던 시대까지 그 내력을 서술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술내용은 빈약하나 서술형식과 서술의식은 『제왕운기』의 내용이 본풀이다운 자질을 더 잘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2. 고조선문화의 원형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신시를 건국한 환웅천왕은 천신의 아들이자 하늘에서 지상으로 강림한 자로서, 하늘에 제의를 올리는 천제권(天祭權)을 지닌 대사제 구실을 하였다. 환웅은 천자이자 천왕으로서 신시의 건국시조일 뿐 아니라, 농경문화와 정착문화를 통해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한 ‘재세이화’의 문화영웅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고조선 이전에 형성된 환웅시대의 ‘신시문화’를 고조선문화의 원형이라 할 수 있으며, 민족문화의 정체성도 이미 신시문화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론한다.

환웅은 자신이 품었던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 이웃의 여러 민족들과 경쟁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문화생활을 일깨워 주고 마침내 신시국의 영역으로 끌어안는다. 대표적인 민족이 곱으로 상징되는 맥족과 범으로 상징되는 예족이다. 맥족은 쭉과 마늘을 먹는 ‘지독한 채식생활’과, 햇빛을 보지 않는 ‘지독한 정착생활’에 잘 적응하여 신시의 농경문화와 정착문화에 쉽게 통합된다.⁶⁹⁾ 상대적으로 채식생활과 정착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예족은 고조선 건국 이후에 통합되었을 것이다. 맥족을 받아들인 신시의 지도자 환웅은 상당히 확대된 영역의 신시를 단군에게 물려주게 된다.

69) 『단군신화에 갈무리된 문화적 원형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단군학연구』 16, 단군학회, 2007, 296~298쪽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결국 환웅의 신시국 이후에 형성된 고조선은 신시문화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고대국가라 할 수 있다. 고조선의 단군왕검은 환웅천왕의 직계 후손으로서 홍익인간의 뜻을 실현하려는 환웅의 이념을 이어받게 마련이다. 도읍지를 옮겨가며 예족을 비롯한 이웃민족과 더불어 홍익인간의 세계를 이룩해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계승된 고조선문화는 역사적으로 후대에 형성된 고구려와 신라, 부여, 옥저, 예맥 등의 나라에 발전적으로 이어졌으며, 이웃나라 중국으로부터 문화적으로 동경의 대상이 된 동이문화의 전통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민족문화의 원형은 환웅본풀이에 나타난 신시문화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고조선문화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문화원형을 구체적으로 포착하려면 환웅시대의 신시문화를 더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 신시는 여러 민족과 결합한 고조선과 달리 천신을 믿는 환웅족의 단일공동체였다. 그리고 신단수를 중심으로 도읍을 정한 신시가 곧 국가명이었다. 도읍지를 국호로 삼는 전통은 단군이 도읍한 아사달이 조선의 국호 구실을 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규모는 고대 도시국가 정도로 추론된다. 환웅의 왕호를 보면, 천왕으로서 하늘에 대한 제사권을 독점하며 신정(神政)을 펼쳤던 사제왕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시는 혈연적 구성으로 보면 부족국가이고, 규모로 보면 성읍국가이며, 명칭으로 보면 도읍국가이다. 그리고 환웅천왕의 왕호와 통치방식을 보면 신시는 ‘신정국가’라 할 수 있다.

신정국가 신시의 도읍지 경관을 추론해 보면, 신시는 신단수라 일컫는 거목의 신수를 배경으로, 환웅천왕이 거주하는 궁실과, 천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신성한 제단을 중요한 경관으로 구성된 도읍지라 할 수 있다. 특히 무리 3천명의 사람들이 모여 하늘에 천제를 올릴 수 있는 신시의 제단 규모는 거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환웅은 대사

제이자 천왕으로서 신단수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는 천제단에 머무르며 신정을 펼치고 ‘재세이화’의 방법으로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적 풀이에 머문다. 신시의 본풀이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추론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나 유물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시와 관련된 기록자료는 단군신화 자료가 현재로서 유일하지만, 고고학적 발굴성과에 따라 유적자료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최근에 발굴 보고되고 있는 홍산문화 유적이 보기이다. 홍산문화는 국가 체제가 확립된 수준의 문화유적으로 인정되지만, 그 문화를 수립한 국가의 정체는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산문화 유적의 연대와 위치는 신시문화와 만난다.

단군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면, 환웅의 신정국가 신시는 그 훨씬 이전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조선문화권에 속하는 홍산문화(紅山文化)는 서기전 4000년~2500년 무렵에 형성된 것이다.⁷⁰⁾ 특히 홍산문화의 우하량(牛河梁) 유적은 기원전 3500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제단 유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이 제단은 원형과 방형의 적석 제단을 이루고 있어 천원지방(天元地方)의 사유체계를 보인다. 제단의 돌돌림 울타리는 3중원형으로 직경은 각각 22m, 15.6m, 11m이며 높이는 0.3~0.5미터이다. 중국학자들은 이 유적지를 근거로 약 5500년 전에 이미 국가 성립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한다.⁷¹⁾ 하지만 이 유적이 역사적으로 어느 국가에 속했는지 알지 못한다. 중국학자들은 북경 천단구조의 원형

70) 윤내현, 『고조선 연구』, 127쪽에 “홍산문화기를 서기전 4000년 무렵~2500년 무렵”으로 보고하고 있다.

71) 신형식·이중호, 「‘中華5천년’, 紅山文明的 再照明」, 『白山學報』 77, 白山學會, 2007, 16~17쪽.

이라고 하며 중화문명의 기원으로 해석한다. 홍산문화를 중화문명의 원형으로 해석하는 셈이다.

한국학자 가운데는 제단의 세 원형을 3수분화의 양식으로 보고 북방 유목문화의 샤머니즘이 모태가 된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⁷²⁾ 북방의 유목문화가 홍산문화의 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단과 닮은 제단 유적들은 북방의 유목문화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다. 정작 이러한 제단 유적들은 오히려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다. 한반도에는 방형 또는 원형의 돌돌림 제단유적이 여러 곳에서 보고되고 있다.⁷³⁾

한반도의 돌돌림 유적은 고조선 유적으로 파악된다. 자연히 기원전 4000년의 홍산문화 유적보다 한참 늦다. 돌돌림 유적의 기능은 집단적 공공활동을 위한 집회장소 또는 제의적 기능을 하던 제단으로 해석된다.⁷⁴⁾ 돌돌림 유적의 규모와 축조방법, 기능을 고려할 때 홍산문화의 제단유적과 비슷하여, 기원을 홍산문화에서 찾는다.⁷⁵⁾ 그러므로 홍산문화 제단의 규모나 방식, 유물 등을 고려할 때 환웅시대의 신시문화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신시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제단유적이 고조선 이후 한반도 일대에 널리 전승되었던 것인데, 최근에 발굴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시의 중심은 홍산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5천년 전의 제단과 사당, 무덤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대규모의 제의문화 유적은⁷⁶⁾ 신정국가인 신시의 문화유

72) 우실하, 『요하 문명, 홍산문화와 한국문화의 연계성』, 『고대에도 한류가 있었다』, 지식산업사, 2007, 492~495쪽.

73) 하문식, 『고조선의 돌돌림유적에 관한 문제』, 『단군학연구』 10, 단군학회, 2004 참조.

74) 하문식, 위의 글, 321쪽 및 326쪽 참조.

75) 하문식, 위의 글, 320~322쪽 및 『고조선의 돌돌림유적 연구 : 追補』, 『단군학연구』 16, 단군학회, 2007, 16~17쪽.

76) 郭大順, 『序言 : ‘遼河文明’ 解』, 遼東城博物館·遼東城文物考古研究所編, 『遼河文明展文物集萃』, 2006. 우실하, 『요하문명, 홍산문화와 한국문화의 연계성』,

적으로 해석하기에 알맞다.

특히 고조선문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요령식동검형 옥검의 출토가 중요한 증거 구실을 한다. 고조선 동검의 모형이 홍산문화의 옥검이며, 이 옥검은 환웅이 하늘에서 가져온 천부인(天符印) 3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 천부인 셋 역시 고조선의 청동기문화로 이어져 동검과 동경, 동방울로 전승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홍산문화 시기와 일치하는 이 지역의 고대 국가체제는 신정국가인 ‘신시’밖에 없다. 고조선 건국시기보다 홍산문화 유적이 상당히 앞설 뿐 아니라, 제단 유적의 규모와 양식이 신정국가이자 성읍국가로서 체계를 잘 갖추었기 때문이다.

제단의 3중원형 울타리는 환웅본풀이에서 되풀이되는 3의 세계를 반영한 것이다. 천부인 3개, 무리 3천, 우사·운사·풍백 3신, 꿈이 3칠일 만에 사람으로 변신하는 등 모두 3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전통은 단군본풀이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환인과 환웅, 단군이 3대를 이룰 뿐 아니라, 단군은 고조선의 도읍지도 3차례 옮기고 다시 아사달로 되돌아간다. 신시문화에서 중요한 숫자는 3이라는 것이 환웅본풀이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제단의 3원형은 유목문화의 3수 분화와 달리, 농경문화의 전통을 지닌 신시문화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학자들은 홍산문화를 ‘신비의 왕국’이 이룬 문화로 해석한다. 중국의 증원문화와 전혀 다른 독특한 문화이자, 연대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비의 왕국 정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발굴 현장만 있을 뿐 이와 관련된 기록도 유물도 전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어떤 중국학자들은 개인적으로 고조선 문화라고 단정하기도 한다.⁷⁷⁾ 그리고 우하량 여신묘에서 발견된 꿈의 아래턱

501쪽에서 재인용.

뼈와 옥웅룡(玉熊龍) 유물을 근거로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토템의 웅녀족 문화로 해석하고, 마침내 웅녀족은 곰토템의 통구스족 후예로 간주하여 북방의 초원문화 또는 유목문화 전래설을 편다.⁷⁷⁾

그러나 단군신화나 고조선의 연대는 기원전 24세기부터 시작되므로 홍산문화보다 후기여서 연대기적으로 맞지 않다. 고조선문화가 민족문화의 가장 초기형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원류를 북방의 유목문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단군신화 이전에 환웅신화가 있고 고조선문화 이전에 농경생활과 정착생활을 누린 천왕체제의 신시문화가 민족문화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없는 한, 여전히 북방문화 전래설이나 유목문화 기원설에서 해방되기 어렵다. 따라서 홍산문화 유적과 유물, 연대 등을 고려할 때, 고조선 이전의 신시문화 유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절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홍산문화에 관한 본격적 연구가 기대된다.⁷⁹⁾

이제 환웅본풀이의 신시문화가 한갓 신화로서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홍산문화 유적으로 그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홍산문화 연구에 앞서서 환웅본풀이에 나타난 신시문화의 다른 영역들도 새삼스레 주목하고 좀더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홍산문화와 신시문화의 관련성도 더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환웅본풀이를 들여다보면, 신시의 궁실에는 천왕을 비롯하여 신시 정부의 3막료인 풍백·우사·운사가 함께 생활하며 세상의 365가지

77) 안영배, 『중 라오시 고조선 근거지로 추정』, 『주간동아』, 2003.1.23.

78) 우실하, 『홍산문화, 요하문명과 한반도의 연계성』,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실증적·문화적 인식』, 제43차 단군학회 학술대회 동북아역사재단 세미나실 발표논문집, 2007.6.2, 116~125쪽.

79) 홍산문화 유적과 환웅본풀이에 갈무리된 신시문화의 관련성은 따로 본격적인 연구를 준비할 계획이다.

일을 두루 보살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 일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그 가운데 특히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을 별도로 열거한 것은 정부의 주무 조직이 5부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신시정부는 3상 5부(三相五部)의 행정체계를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⁸⁰⁾

신시정부의 행정조직과 환옹이 주관한 주요 업무를 보면, 농경문화와 정착문화 외에, 인간의 수명과 질병을 다루는 수명장수의 문화 그리고 형벌과 선악을 다루는 법치문화 및 윤리문화도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곡’이 신시시대의 농경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면, ‘주명’은 생명 또는 수명에 관한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주명’이 다음의 ‘주병’과 나란히 거론되는 것으로 봐서는 질병 없이 건강하게 수명장수를 누리는 문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셈이다. 달리 말하면, 신시정부는 의술과 약술, 주술 등의 방법으로 불로장생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 전문 부처가 있었던 것을 말한다.

다음의 ‘주형’과 ‘주선악’도 함께 봐야 할 것이다. 형벌을 주관한다는 것은 법을 만들어 집행한 것을 말한다. 일찍이 고조선에 팔조금법(八條禁法) 있었다는 것은⁸¹⁾ 곧 신시문화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으로 죄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형벌을 통해 사회질서를 바로잡았다는 사실이며, 들은 군주라도 임의로 죄인을 처벌하지 않고 법질서에 따랐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통은 최근까지 이어져서 이웃나라와 대조가 된다.

중국에서는 제왕의 권력이 너무 커서 최고의 신하라도 두려워했으나, 한국에서는 초야의 선비라도 상소를 해서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

80) 慎鏞廈, 『韓國民族의 기원과 형성』, 같은 책, 39쪽 및 『檀君說話의 사회학적 해석』, 같은 책, 166~167쪽 참조.

81)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47쪽.

고 시정을 촉구할 수 있었다.⁸²⁾ 일본에서는 무사가 칼을 차고 다니며 시건방지다는 구실로 상민을 즉결처분할 수 있었으나, 한국에서는 종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죄인이라도 관가에 고발해 반드시 재판을 거쳐서 형벌에 처하게 했다.⁸³⁾ 제왕과 양반도 법을 따르는 전통이 뿌리 깊게 이어졌다.

법치국가에서 나아간 것이 선악의 문제를 다스리는 덕치국가이다. ‘주선악’은 법치보다 도덕이나 윤리 차원에서 세상을 도리와 덕으로 다스린 사실을 말한다. 따라서 선악의 판별이 통치행위의 주요 덕목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수준 높은 문화사회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⁸⁴⁾ 그러므로 조선조에도 중국과 달리 초야의 선비들이 선악을 논하며 왕의 잘잘못을 따지는 상소를 올릴 수 있는 전통이 이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신시대에 그러한 수준의 문화생활을 누렸는가 하는 것은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설득력을 갖추려면 더 구체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단순한 항목 제시에 지나지 않는 내용을 두고 환웅시대에 이미 수명장수를 추구하는 불로장생의 문화나, 법치와 덕치의 법문화 또는 윤리문화까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신정국가의 제단이나 천부인 같은 유적과 유물은 고고학적 발굴보고서로 입증할 수 있으며, 수명장수나 불로장생 그리고 법문화나 윤리문화와 관련된 사실은 무형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인 유적이거나 유물의 증거를 찾아 입증하기 어렵다. 무형문화는 오직 기록이나

82) 조동일,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 2- 경계 넘어서기』, 계명대학교출판부, 2005, 238쪽.

83) 조동일, 위의 책, 238~239쪽.

84) 서대석, 위의 책, 48쪽 참조.

구전, 민속자료에서 증거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중국 고대사료에는 우리 고대사에 관한 기록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러한 증거 부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 생활세계 속에서 그러한 전통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먼저 중국의 문헌을 보면, 『후한서』 『동이열전』에서 동이사람들은 “천성이 유순하여 도리로서 다스리기 쉽기 때문에 군자국(君子國)과 불사국(不死國)이 있다”⁸⁵⁾ 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공자도 동이에 살고 싶어 하였다”고 한다.⁸⁶⁾ 이 기록은 동이열전 총론의 가장 첫 문장이다. 그리고 “동이는 모두 토착민으로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즐기고, 머리에는 변(弁)이라는 모자를 쓰고 비단옷”을 입어서, “중국이 예(禮)를 잃으면 동이에서 구했다”⁸⁷⁾ 하였다.

‘동이’의 어떤 나라가 도리로서 다스리는 군자국이자 불사국이어서 공자까지 동이에 가서 살고 싶어 했을까. 동이는 ‘토착민’이며 음주가무를 즐기고 비단옷을 입었다는 기록도 여기저기 보인다. 음주가무는 농경시필기의 제천행사와 만난다. 한마디로 정착생활을 하는 농경민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따라서 초원을 떠돌아다니며 육식을 주로 하는 유목민과 달리,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며 선악을 분별하고, 법치와 덕치를 통해 재세이화하는 홍익인간의 나라 ‘신시’가 바로 군자국의 보기가 될 수 있다.

불사국은 불로장생하여 죽지 않는 나라이다. 따라서 불사국의 정

85)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75. “故天性柔順 易以道御 至有君子不死之國焉.”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1, 國史編纂委員會, 1987, 97쪽에서 재인용.

86) 『後漢書』, 위와 같은 곳, “故孔子欲居九夷也.” 여기서 구이(九夷)는 곧 동이의 여러 세력을 포괄하는 말이다.

87) 『後漢書』 위와 같은 곳, “東夷率皆土着 憲飲酒歌舞 或冠弁衣錦 (일부 줄임) 所謂中國失禮 求之四夷者也.”

체는 두 갈래이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불로장생하여 수명장수를 누리는 나라이며, 둘은 죽어도 저승에서 다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나라이다. 따라서 첫째 뜻으로서 불사국은 사람들의 질병과 수명을 중요하게 다스리며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나라 신시가 그러한 나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둘째 뜻으로서 불사국은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불사를 믿는 사람들은 저승에서 다시 영생한다는 인식에 따라 주검을 처리하고 무덤을 쓴다. 신시문화 지역으로 추론되는 요하지역 일대에는 대형 적석총이 분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묘지에는 옥기들이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다. 피라미드에 견줄 만한 적석총은 단순한 무덤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검과 더불어 출토된 다양한 옥기들도 영생불멸을 추구한 것이라⁸⁸⁾ 할 수 있다.

요하지역 최초의 옥기는 흥룡와(興隆洼)문화에서 출토된 옥귀고리로서 기원전 6000년 무렵의 것이다. 이와 같은 모양의 옥귀고리는 강원도 고성 문암리 유적과 여수시 안도리 패총유적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요하지역과 한반도 남쪽은 같은 문화권이었음을 알 수 있다.⁸⁹⁾ 옥기는 신라 금관을 비롯한 각종 장신구의 곡옥으로 이어진다. 물론 북방의 유목문화 지역에서는 이러한 옥기가 보이지 않는다.

피라미드 규모의 대형 적석총과 다량의 옥기 부장품은 죽음을 부정하는 상징물이다. 단순한 주검의 처리를 위해서는 대규모 노동력의 장기간 투입을 필요로 하는 돌무덤을 쓸 까닭이 없다. 특히 옥은 대단히 단단하여 예사 공구로는 가공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정교하게 가공한 옥기들을 주검의 곳곳에 부장한 것은 죽음을 극복하고자

⁸⁸⁾ 이형구, 같은 책, 118~121쪽에 이 지역 출토옥기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⁸⁹⁾ 우실하, 지도 『고조선의 강역과 요하문명』, (주)동아지도, 2007 참조.

하는 종교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시문화의 유적으로 추론되는 홍산문화는 불사국의 자취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군자국과 불사국은 돌이면서 하나이다. 모두 동이를 일컫는 말이니 하나이되, 그 성격은 둘이다. 고대 중국인들에게 동이는 두 가지 면모를 다 갖춘 나라였던 것이다. 앞에서 홍산문화는 신시문화의 유적이라 하였는데, 군자국과 불사국의 자리매김과 다시 만난다. 정착생활과 농경생활을 이룩하고 불로장생을 추구하며 선악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한 환웅의 신시문화는 충분히 군자국 또는 불사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후한서』의 시대에는 신시가 존재하지 않았다. 신시문화의 원형이 동이지역에 후한서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환웅의 아들 단군이 세운 고조선은 환웅의 신시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웅과 단군의 두 본풀이가 하나의 본풀이처럼 발전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신시문화와 고조선문화가 부자(父子)의 문화로서 같은 계통의 문화이자 하나의 문화로 이어진 까닭이다.

고조선 이후에 성립된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제왕운기』에 밝혀둔 것처럼, 신라와 고구려, 남북옥저, 동북부여, 예와 맥 등이 모두 단군의 후예들로서 동이의 구이(九夷)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환웅의 신시문화가 고조선을 거쳐서, 고조선의 거수국(渠帥國)에서⁹⁰ 독립한 여러 나라들에도 신시의 문화가 전승되고 발전되어 군자국과 불사국으로서 수준 높은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공자까지 동이문화를 동경했을 까닭이 없다. 한마디로 동이문화

⁹⁰ 윤내현, 같은 책, 63쪽. 고조선의 거수국은 고조선의 제후국으로서 고구려, 동옥저, 부여, 읍루, 예, 한(韓) 등의 나라를 일컫는다.

의 원형이 바로 환웅이 수립한 신시문화였던 것이다.

중국 사료에 의해서 고조선 이전의 신시문화의 정체가 한층 선명하게 드러났다. 오죽했으면 공자까지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동이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을까. 그리고 중국에서 예를 잃으면 동이에서 구했다고 했겠는가. 더군다나 이러한 내용은 『후한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문헌에도 거듭 기록되어 있어서 한층 객관성을 지닌다. 군자국과 불사국의 내용은 『설문해자』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어질고 슬기로운 문화를 누린 까닭에 공자가 동이에 가서 살고 싶었다는 내용은 원전인 『논어』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허신(許慎)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동이를 이웃의 다른 민족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더욱 흥미롭다. “남방의 만(蠻)은 점장이에서 비롯되었고, 북방의 적(狄)은 개에서 비롯되었으며, 서방의 강(羌)은 양에서 비롯되었다”고⁹¹⁾ 하면서 “오직 동이만은 대의를 따르는 대인(大人)들이며, 그 풍속은 어질고(仁) 어진 이는 장수한다. 따라서 동이에는 군자국과 불사국이 있다”고⁹²⁾ 하였다. 다른 민족과 견주어서 상대적으로 나타냈을 뿐 아니라, 동이족 문화는 ‘중국과 같지만 중국보다 빼어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중국인의 시각이 잘 드러난다.

『논어』 자한(子罕)편의 기록은 한층 구체적이다. 조선에는 예의로서 백성을 교화하고 양잠을 하여 명주를 짜고 범죄를 금하는 8조의 법 외에 60여조의 법이 만들어져 있을 뿐 아니라, ‘어질고 슬기로 교화를 하여 동이족은 천성이 유순하며 이웃나라와 다른 까닭에, 공자는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서글프게 생각하여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동이에 가 살고 싶다’고⁹³⁾ 했다. 예의로서 백성을 교화한 것은 군

91) 許慎, 『說文解字』 東夷. “南方蠻從筮 北方狄從犬 西方羌從羊”.

92) “東夷從大 大人也 夷俗仁 仁者壽 有君子不死之國”.

자국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른바 8조금법과 60여조의 법은 신시의 ‘주형(主刑)’에 의한 법치문화에 해당된다. 신시의 법치문화가 한층 정교하게 발전되어 후대에 널리 계승되고 있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논어』 공야장(公冶長)편에도 같은 내용이⁹⁴⁾ 거듭 나온다. 따라서 공자는 수시로 이웃의 여러 민족과 동이를 비교하고 동이문화의 도덕적 우수성을 동경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자시대까지 환웅이 세운 신시문화의 전통이 동이의 여러 나라들에 이어졌을 뿐 아니라, 공자가 그 사실을 알고 발해를 건너 한반도 이민을 꿈꿀 정도로 중국에까지 널리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3. ‘신화고고학’으로 읽는 선사문화의 정체성

민족문화의 원형은 쉽게 사라지지도 바뀌지도 않는다. 홍산문화와 같은 시기에 형성된 기원전 30세기 전후의 신시문화 전통이 기원전 6세기 인물인 공자의 시대까지 중국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발전적으로 이어졌다. 동이문화가 발해를 건너 중국에도 널리 영향을 미친 까닭에 동이는 중국인들에게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군자국이었을 뿐 아니라, 영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상향의 불사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당대 최고의 성인인 공자도 군자국 동이를 동경했고, 최고의 제왕인 진시황도 불사국 동이를 꿈꾸며 끊임없이 동남동녀를 보내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했던 것이다.⁹⁵⁾

93) 『論語』『子罕』, “仁賢之化 然東夷天性柔順 異於三方外 故孔子悼道不行 設浮於海 欲居九夷.”

94) 『論語』 公冶長篇 子漢地理, “東夷天性柔順 異於三方外 故 孔子曰 悼道不行 設文解字 欲居九夷 有以也.”

95) 김성환, 『최초의 한류, 동아시아 삼신산 해상루트의 기억을 찾아서』, 『동아시아 전통문화와 한류』, 동양사회사상학회 국제학술대회(전남대학교, 2007년 1

한무제 이후까지 300여 년 이상 지속된 불사약에 대한 동경은 진시황 때 절정을 이루었다. 그들이 동경한 문화적 전통은 한반도에서 더 후대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다. 신시문화에서 형성된 민족문화의 원형이 고조선을 거쳐 신라, 고구려, 부여, 옥저 등의 여러 나라에 이어지면서 더욱 발전되고 이웃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진시황대까지 이처럼 뿌리깊게 영향을 미친 동이문화가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화란 일시에 흥성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전통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환웅의 신시문화도 급작스레 형성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환웅 이전에도 훌륭한 문화를 이룩한 문화적 전통이 토대가 되어 신시문화와 고조선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풀이가 태초의 우주에서 지금 여기의 현재상황까지 노래 하듯이, 본풀이의 이치로 보는 신화학 논의도 시공간적으로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환웅본풀이에 나타난 신시문화의 전통이 공간적으로는 중국지역에, 시간적으로는 공자시대 이후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중국측 고대사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중국의 현대 발굴자료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홍산문화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풀이의 시각으로 보면, 태초의 시기로 가능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선사문화를 파고드는 고고학적 연구와, 지금 여기 우리의 생활문물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해 보는 고현학(考現學, modernology)적 연구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므로 본풀이신화학을 제대로 펼치면 ‘신화고고학’과 ‘신화고현학’의 지평을 더 넓게

월 8일) 발표논문집, 83~86쪽에서 기원전 4세기부터 한무제 때까지 무려 3백 년 동안 불사(不死)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삼신산(三神山)을 찾는 탐사대가 발해를 건너 한반도를 향해 끊임없이 떠났으며, 진시황대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 상황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개척할 수 있다.

신화고고학적 시각에서 이미 환웅시대의 신시문화와 홍산문화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밝혔다. 신화고고학을 더 확장하려면 환웅의 신시문화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지리적으로 이웃한 다른 민족들과 교류관계도 더 확대해서 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풀이의 열쇠도 단군신화의 압축과일 안에 두루 갈무리되어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열쇠이자 무형문화의 열쇠로서 단군의 명칭이며, 둘은 간접적인 열쇠이자 유형문화의 열쇠로서 빗살무늬 토기이다. 뒤의 열쇠가 고고학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될 것이다.

먼저 단군의 이름과 관련한 전래설을 보자. 최남선이 일찍이 단군을 몽골어 ‘텡그리’와 같은 말로 밝힌 이래, 일부 학자들은 텡그리에서 단군이 왔다는 전제로 몽골문화 기원설이나 유목문화 전래설을 펼치는 유희를 받는다. 최남선은 ‘불함문화론’에서 단군을 하늘과 무당을 나타내는 몽골어 Tengri를 거론하기⁹⁶⁾ 시작한 이래, 계속해서 단군신화에 관한 여러 편의 글을 상당히 풍부하게 발표했는데, 그때마다 단군을 흉노어 ‘텡리(撐犁)’와 몽골어 ‘텡거리(騰格里)’ 또는 ‘텡걸’, 그리고 우리 무당을 가리키는 당굴, 당골네와 연관짓는 일을 되풀이했다.⁹⁷⁾ 그러나 연관성과 동질성만 말했을 뿐 전래설을 펴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텡그리라는 말이 시베리아 유목민족은 물론 터키어에까지 ‘하늘’ 또는 ‘천신’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는 사실이 학계에 널리 보고되었다. 전래설을 펴는 사람들은 텡그리를 근거로 단군의 고조선 문화가 북방의 유목문화에서 비롯된 근거로 삼게 마련이다. 유목문화

96) 崔南善, 『不咸文化論』, 『六堂崔南善全集』2(壇君·古朝鮮 其他), 玄岩社, 1973, 60쪽.

97) 崔南善, 위의 책에 수록된 단군 관련 논문 참조.

기원설을 펴기에 안성맞춤인 자료인 까닭이다. 그러나 단군과 텡그리의 공통조어를 인정하더라도 이 전래설에는 두 가지 모순이 있다.

하나는 단군신화에서 하늘을 뜻하거나 천신을 뜻하는 말은 환인과 환웅이 별도로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늘의 신이나 하늘에서 하강한 환인과 천제는 곧잘 환인천제(桓因天帝), 환웅천왕(桓雄天王)으로 표기된다. 아예 환인이 아니라 본디 ‘환국(桓國)’으로 기록되었다는 자료도 있다.⁹⁸⁾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昔有桓因]”가 아니라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昔有桓國]”는 것이다.⁹⁹⁾ 그러나 풀이는 제석(帝釋)으로서 천제(天帝) 곧 천상의 제왕을 나타내는 데 일치하며, 『제왕운기』나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는 모두 환인으로 되어 있다. ‘환인’은 불교에서 하늘을 뜻하고, 환웅은 천왕으로 일컫는다. 그러므로 환웅본풀이에서 말하는 하늘 또는 천신을 뜻하는 말은 ‘단군’ 또는 ‘텡그리’가 아니라 환인과 환웅이다.

환인과 환웅이 아니라도 하늘과 천신을 나타내는 우리말은 본디부터 있었다. ‘하늘’ 또는 ‘하느님’이다. 신을 나타내는 ‘서낭’ 또는 ‘서낭님’이라는 우리말도 별도로 있다. 본디 우리말을 두고 텡그리라는 외래말을 가져올 까닭이 없다.

둘은 텡그리를 천신의 뜻으로 쓰며 텡그리를 섬기는 유목민족에게는 환인이나 환웅과 같은 하늘 또는 천신을 나타내는 말이 별도로 없다는 점이다. 그들의 신화에 등장하는 텡그리는 천신으로서 건국시조가 아니다. 텡그리와 같은 말이라고 하는 단군은 사실상 환웅과 곶네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이자 지상의 왕이었다. 따라서 천신의 후손

98) 현재 전하고 있는 『삼국유사』 최고본인 정덕본(正德本)에는 환국으로 되어 있다. 이석남 송석하 소장 『삼국유사』에도 환인이 아니라 환국으로 표기되어 있다. ‘국’자는 □ 안에 토가 있는 글자이다.

99) 성삼제, 『고조선 사라진 역사』, 동아일보사, 2005, 7장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일제가 역사왜곡을 위해 환국을 환인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과, 천신 자체를 뜻하는 텡그리는 같은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층위의 말이다. 단군은 어디까지나 천신의 후손으로서 나라를 처음 세운 건국시조이다.

유목문화에 텡그리가 신화에 등장하는 경우에도 천지창조신화에서 천신으로 등장할 뿐¹⁰⁰⁾ 건국신화에서 시조로 등장하지 않는다. 단군신화의 내용을 고려하면, 우리 민족은 단군 이전에 천왕인 환웅신이 있고 그 이전에 천제인 환인신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환인’과 ‘환웅’, ‘하늘’, ‘하느님’ 등의 말은 ‘단군’이나 ‘텡그리’라는 말 이전에 형성된 말이자, 그보다 더 높은 층위의 말이다. 따라서 만일 단군과 텡그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면, 단군에서 텡그리란 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텡그리는 그 계보가 불분명하지만 단군은 환인과 환웅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가 분명한 까닭이다.

중국의 『위서』에도 환인이나 환웅의 신시 기록은 없고 단군의 조선에 관한 기록만 있다. 당시 동북아의 교류와 세계 인식의 한계이다. 중국도 단군조선의 역사는 알고 있지만 환웅신시의 역사는 알지 못했던 셈이다. 따라서 북방민족들도 환인이나 환웅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고조선 이후의 단군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고 왕호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단군이라는 말이 북방의 유목민족에게 영향을 미쳐서 텡그리라는 말이 생겼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단군이 환웅천왕의 아들로써 천자의 혈통과 지위를 누리고 하늘에 제사하는 제천의식의 사제권을 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웃나라들은 환웅천왕 이후부터 고

100) 김효정, 『튀르크족의 기록에 나타난 ‘텡그리(Tengri)’의 의미』, 『韓國中東學會論叢』 28-1, 韓國中東學會, 2007에서 텡그리가 나오는 두 편의 신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모두 천지창조신화에서 하늘나라의 절대 신으로 나온다. 단군신화의 환인에 해당되는 존재가 텡그리이다.

조선 시기까지 줄곧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유일의 지도자로서 단군을 천자와 같은 존재로 인식했을 것이다. 고대사회 질서의 중심은 바로 제천의식의 사제권을 쥐 천자였다. 환웅천왕의 천제권을 이어받은 단군은 바로 중국의 천자와 같은 왕호였으며, 고조선은 당시에 북만주 일대의 문화적 중심국가였다. 그러므로 천제권을 지닌 단군이라는 왕호가 일반화되면서 북방민족들도 고조선문화의 영향을 받아 단군을 뜻하는 텡그리를 천신으로 일컬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고조선의 국가 위상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환웅의 신시시대에는 성읍국가 수준이었으나 단군의 고조선 시대에는 고대국가 수준으로 그 문물이 이웃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고조선의 갑옷을¹⁰¹⁾ 비롯한 복식도¹⁰²⁾ 상당히 앞선 까닭에 동북아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고조선의 강역도 북쪽 유목문화지역까지 대단히 넓게 점유하고 있었다.¹⁰³⁾ 게다가 중국이 동이문화를 동경할 만큼 영향을 받았는데, 북방의 다른 민족이라고 하여 동이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천의식의 사제권을 누린 고조선의 단군이 여러 북방민족에게 영향을 미쳐 텡그리라는 어휘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유목민에게는 천신을 뜻하는 환인이나 환웅과 같은 말이 별도로 없다.

신화고고학의 두 번째 열쇠는 고조선 지역에서 널리 발견되는 유물로서 빗살무늬토기를 들 수 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유물이라 할 수 있는 빗살무늬토기들은 한결같이 밑면이 타원형이다. 그 크기도 독처럼 상당히 거대한 것이 많은데, 그 자체로 세워둘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구조이다. 따라서 솔처럼 불박이로 걸어두고 사용

101) 박선희, 『고대 한국갑옷의 원류와 동북아시아에 미친 영향』, 『고대에도 한류가 있었다』, 지식산업사, 2007, 231~295쪽 참조.

102) 박선희, 『한국 고대 복식—그 원형과 정체』, 지식산업사, 2002 참조.

103) 윤내현 외, 『고조선의 강역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6 참조.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토기는 정착문화가 빚어낸 용기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에게는 빗살무늬토기는 매우 불편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크기나 불안정성으로 볼 때 이동용도 휴대용으로 도 적합하지 않은 까닭이다. 유목문화의 그릇은 아무 곳에 놓아도 안정감을 이루도록 밑면이 평면이어야 하고 크기도 휴대하기 쉽게 작아야 하며 쉽사리 부서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실제로 유목문화 지역에는 지금도 이와 같은 거대한 토기나 질그릇에 해당되는 독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빗살무늬토기는 정착문화를 누린 사람들의 발명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 토기가 시베리아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는 이유로 빗살무늬토기는 시베리아를 거쳐 한반도에 퍼진 것으로 해석하거나,¹⁰⁴⁾ 우리 신석기문화를 북방문화권에 속하는 근거로 해석한다.¹⁰⁵⁾ 그러나 이 토기는 불박이용 정착생활에 적합한 용기여서 북방의 유목문화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용기이다. 유목민들은 이동하기 쉽고 부서지지 않으며 쉽게 공급 가능한 가죽자루를 즐겨 사용한다. 그러므로 이 토기는 정착문화가 일찍이 발전한 지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발해연안에서 발견된 빗살무늬토기의 연대는 기원전 6000년에서 5000년으로 동유럽과 시베리아지역보다 무려 1000년 이상이나 앞선다.’¹⁰⁶⁾ 게다가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발굴되고 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평양의 용곡 동굴

104) 이근무·조범중, 『선사유물과 유적－한국미의 재발견』, 솔출판사, 2003, 27쪽. 이형구, 같은 책, 87쪽 참조.

105)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전통문화』, 한국박물관학회, 1998, 14쪽 ; 이형구, 같은 책, 87쪽 참조.

106) 이형구, 같은 책, 93~94쪽.

유적이다. 왜냐하면 ‘구석기시대 유물과 인류 화석이 발견된 윗층에 다시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와 인류 화석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¹⁰⁷⁾ 이 유적은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토기가 시베리아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형성되었던 구석기 문화가 신석기 문화로 계승되고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까닭에 시베리아 기원설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우리는 흔히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바로 건너가는데, 석기시대 후기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바로 토기이다. 토기가 있어서 비로소 물을 담을 수 있고 음식을 끓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토기는 정착문화의 유산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서 구들보다 앞서는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곰과 범에게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정착생활을 가르친 셈인데, 이때 이미 물을 담는 토기가 있었다고 하겠다. 집 안에 머물러 살려면 물을 저장해서 쓰지 않고서는 그러한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착생활과 물을 담는 토기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토기의 발명은 인류 최초의 혁명”이라고¹⁰⁸⁾ 할 수 있다.

신석기 시대는 토기를 병용하기 시작한 시대인데, 사실 토기의 기능으로 본다면 석기시대 이후 토기시대를 별도로 설정하여 시대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토기가 있어야 청동기도 가능하다. 석기만으로 청동을 녹이고 주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토기가 청동기, 철기를 낳은 셈이다. 게다가 토기는 석기처럼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최근까지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가장 오랜 생활도구이다. 혁명적 발명인 빗살무늬토기는 고조선 문화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한민족 선

107) 이형구, 『‘발해문명’ 창조 주인공은 우리 민족』, 주간 『뉴스메이커』 745호, 경향신문사, 2007년 10월 16일, 34쪽.

108) 이형구, 같은 책, 86쪽.

사문화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학계는 빗살무늬의 상징이나 기능도 아직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밑이 뾰족한 것은 그릇을 모래밭에 박아 고정시켜 사용했던 것으로 해석한다.¹⁰⁹⁾ 빗살무늬는 모래에 묻었을 때 마찰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궁색한 기능을 말하는 것이 고작이다. 모래에 박을 때 뾰족한 것은 마찰을 줄여서 쉽게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반면에, 빗살은 마찰을 높이는 구실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순관계에 있다. 정확한 용도를 모르니 그렇게 궁색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토기의 구조로 보면, 솥을 걸듯이 불박이로 걸어두고 물이나 곡물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끓이는 데 적절한 용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토기는 열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솥으로 이용하려면 특히 열전도율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기법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계란 모양의 타원형이고 둘은 빗살무늬 새김이다. 첫째, 가마솥처럼 밑면을 길게 타원형으로 하면 불꽃이 닿는 면적을 최대한 늘여서 열효율을 높일 수 있다. 우리 불박이형 솥의 밑면이 모두 타원형인 까닭도 이 때문이다.

둘째, 평면에 새김무늬를 넣으면 불꽃이 쉽게 타오르게 되고, 골이 파여져 있으면 불기가 닿는 면이 더 많아져서 열전도율도 높아진다. 빗살무늬 가운데도 불꽃이나 불기의 흐름에 따라 V자 모양을 일정하게 새긴 무늬는 그러한 효율성을 더 높이게 된다. 초기의 토기는 민무늬였다가 후대에 빗살무늬를 사용한 것도 발전단계를 뜻한다. 초기의 민무늬토기는 막사발처럼 입구가 넓고 깊이가 얕는데, 빗살무늬토기는 팽이처럼 입구가 좁고 깊이가 깊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우리 식품사를 나타내기도 한다. 처음에는 곡물로 죽을 끓여먹다가 점

109) 이형구, 『발해연안 빗살무늬토기 문화의 연구』, 『한국사학』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73~75쪽.

차 밥을 지어먹은 것이 아닌가 한다. 밥을 지어먹는 데는 토기의 열효율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접시형 민무늬에서 팽이형 빗살무늬형으로 발전한 것이다.

시루는 증기를 이용하여 음식을 익히는 것으로서 솥을 전제로 한다. 자연히 솥 없는 시루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시루가 솥보다 앞서 나타났다는 발굴유물을 전제로, 우리 식품사를 정리한 결과, 먼저 시루에다 떡을 찌며다가 뒤에 밥을 지어먹었다는 식으로 밥의 역사 앞에 떡을 설정하는 식품학계의 해석은¹¹⁰⁾ 잘못이라 생각한다. 시루라고 하는 유물의 물증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논리적 해석 능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솥 구실을 했을 토기의 기능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지 못한 탓이라 할 수 있다.¹¹¹⁾ 민무늬 토기에다 죽을 끓여 먹다가 밥을 지어먹으면서 발명한 것이 빗살무늬토기인 것이다. 떡을 찌며는 시루는 그 이후이다. 그러므로 빗살무늬토기를 통해서 솥과 시루에 의한 음식문화사를 다시 정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4. ‘신화 고현학(考現學, modernology)’으로 읽는 현실문화의 정체성

본풀이의 논리에 따라 ‘신화고고학’으로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여기 우리들의 생활세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 지금 여기의 문화를 풀어야 할 차례이다. 흔히 단군신화의 내용을 까마득한 고대사 자료로만 여기고 지금의 현실 상황과 무관한 것처럼 다루어서는 본풀이로서 이해의 길이 막힌다. 본풀이는 과거의

110) 이종미, 『한국의 떡 문화 형성기원과 발달 과정에 관한 소고』,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7,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92, 181~182쪽.

111) 『물질문화의 재인식과 문물로서 유무형 문화의 유기적 해석』, 『민속학연구』 20, 국립민속박물관, 2007, 183~184쪽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내력이면서 현재의 문제상황이자 미래의 전망까지 겨냥한다. 그러므로 신화고고학과 더불어 ‘신화고현학’으로서 논의도 피해갈 수 없다.

신화고현학에도 두 가지 길이 있다. 현재 신화가 본풀이로서 어떻게 노래되고 있는가 하는 구연현장 연구의 길과, 고대의 신화 내용이 현재 우리 생활세계 속에 어떻게 살아있는가 하는 문화정체성 연구의 길이 있다. 이 논의에서는 단군신화를 대상으로 한 신화고고학의 연장선에서 문화정체성 연구의 길을 가고자 한다. 문화정체성을 겨냥한 신화고현학은 현재에도 우리가 단군신화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현실문화의 정체성을 실감나게 포착하는 일이다.

실제로 고조선 건국신화로서 단군신화의 전통은 후기에 형성된 다른 건국신화 체계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지금의 우리 생활세계 속에 다양하게 지속되고 있다. 천손강림의 전통은 주몽신화와 박혁거세신화, 수로왕신화로 이어지고, 신수의 전통은 김알지신화의 계림과 대홍수신화의 나무, 그리고 당신화의 당나무로 이어진다. 환웅이 깃들어 있던 신단수는 동신이 깃들어 있는 당나무로서 마을의 동수(洞樹) 또는 당산숲으로 살아 있다. 나라의 신수인 신단수의 전통은 고을의 부신목(府神木), 마을의 당나무, 마을곳의 서낭대, 무당의 내림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나무를 통해 신단수의 전통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우리 곳문화의 정체성도 확인할 수 있다. 천신 환웅이 내려와 신단수에 깃들어 있듯이, 곳에서 모든 신들은 내림대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무당 몸에 실리거나 굿판에 좌정한다. 신들림 현상이 우리 곳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시베리아 샤머니즘은 오히려 무당이 탈혼하여 이계(異界)여행을 하며 신을 찾아간다. 따라서 기유모즈(Alexander Guillemoz)는 “무당은 샤먼과는 반대로 신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신을 받아들이고 맞아들이는 것”이라고¹¹²⁾ 대비한다. 이계의 신을 불

러오는 우리 굿과, 이계로 신을 찾아가는 샤머니즘은 구조적으로 맞서는 관계에 있다.¹¹³⁾

샤머니즘과 달리, 굿문화의 전통은 정착생활을 하며 농경문화를 누린 사람들이 창출한 신앙생활이자 제의양식이다. 무당이 되려면 신이 지펴야 한다. 굿을 할 때도 신령을 굿판에 모셔와서 좌정시켜야 비로소 굿이 진행된다. 그러나 새로운 풀밭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문화는 신도 다른 세계로 찾아가서 만난다. 이계에 신이 있으면 그곳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유목문화의 사유방식이다.¹¹⁴⁾

무당의 입무과정은 물론 굿의 양식에서도 유목민들의 샤머니즘과 우리 굿문화는 기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엑스타시(Ecstasy)형인 샤머니즘이 신을 찾아 이계로 여행하는 이동형 유목문화의 굿이라면, 포제션(Possession)형인 우리 굿은 신을 내림받아 모셔두고 굿을 하는 정착형 농경문화의 굿이라 할 수 있다.¹¹⁵⁾ 따라서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신앙양식이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생태학적 환경이 종교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굿문화의 기원을 유목문화의 샤머니즘에서 찾는 것은 문화적 원형과 생태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

단군신화에 갈무리된 굿문화의 원형이 지금의 굿문화에 지속되면서 한국 굿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것처럼, 곰네가 동굴 속에서 금기했던 3칠일은 출산 민속으로서 산모가 3칠일 동안 출입을 삼

112) 알렉상드르 기유모즈, 크리스찬아카데미編, 『現世의 福樂追求의 信仰』, 『韓國의 思想構造』, 삼성출판사, 1975, 406쪽.

113) 「굿 문화사 연구의 성찰과 역사적 인식지평의 확대」,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2006, 76~80쪽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114) 「왜 지금 겨레문화의 뿌리를 주목하는가」, 『比較民俗學』 31, 比較民俗學會, 2006, 202~214쪽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115) 위의 글, 208~209쪽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가는 금기풍속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동굴 속에서 먹었던 쑥과 마늘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식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흔히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금기를 지켜 인간으로 변신하는 이야기로 인식되지만, 사실은 환웅족의 신시문화를 동경한 곰족과 범족의 문화적 적응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곰과 범이 환웅을 찾아와 사람되기를 빌었다고 하는 것은, 유목생활을 하며 주로 육식을 하던 맥족과 예족이 신시에 찾아와서 환웅에게 선진적인 농경문화의 전수를 요청한 셈이다. 이때 환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다발과 마늘 20 줄기를 주고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되리라’ 하였다.”¹¹⁶⁾ 육식생활을 버리고 채식생활을, 유랑생활을 버리고 정착생활을 해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목생활에서 벗어나 농경생활에 적응하도록 이끌어준 셈이다. 따라서 단군신화에 나타난 곰네의 인간화는 한갓 변신담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에 이른 문화적 비약을 뜻하는 것이다.

환웅본풀이의 구조로 보아서,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홍익인간의 실천이고 ‘재세이화’의 구체적 보기에 해당된다. 여기서 신시문화가 이룩한 채식 위주의 식생활과 정착 중심의 주생활이 구체화되고 민족문화의 원형이 분명하게 마련된다. 이 두 가지 문화적 원형은 민족문화의 유전자로 지금의 생활세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쑥과 마늘을 먹는 식문화는 동북아시아에서 한민족에게만 완벽한 전통으로 지속된다. 중국은 쑥을 먹지 않고 일본은 마늘을 먹지 않으며, 몽골은 쑥과 마늘을¹¹⁷⁾ 먹는 식문화가 없다. 중국은 마늘만, 일본은 쑥만

116) 『三國遺事』卷一, 紀異, 古朝鮮. “時神遣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117) 몽골에서 야생마늘을 먹는 문화가 있다. 그러나 우리처럼 마늘을 즐겨 먹지 않으며 마늘을 재배하지도 않는다.

어느 정도 먹되 그러한 반쪽 식문화의 전통도 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그러므로 우리 식생활을 돌아보면 환웅이 신사에서 곰과 범을 일깨우던 가르침대로 여전히 쭉과 마늘을 먹는 식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단군신화의 생활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다.¹¹⁸⁾

쭉과 마늘은 전형적인 채식이자 자연채취에 의한 나물문화의 원형을 이룬다. 유목문화의 전통을 지닌 사람들은 농경생활에 진입하면서 나물을 뜯어먹는 채취문화를 잃어버렸는데, 한국인만은 산업사회에서도 유독 채취시대의 식문화인 나물문화의 전통을 지속한다.¹¹⁹⁾ 해마다 봄이면 산채를 즐겨 먹고 식당에 산채정식과 산채비빔밥이 차림으로 제공되는 식문화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쭉과 마늘로 대표되는 채식문화의 원형은 단군신화 이래 반만년 동안 지속되는 뿌리깊은 식문화의 전통이자, 민족문화의 정체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¹²⁰⁾

식생활뿐만 아니라 주거생활도 마찬가지이다.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지내라고 하는 것은 정착생활을 요구하는 것이다. 쭉과 마늘이 지독한 채식생활이듯이, 햇빛을 보지 않는 100일간의 칩거생활도 지독한 정착생활에 해당된다.¹²¹⁾ 문화적 교화를 위해서는 지독한 문화수련이 필요한 까닭이다. 실내에서 장기간 생활을 하려면 가옥을 짓고 물을 담아 저장할 그릇이 있어야 하며, 난방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내에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큰 토기가 진작 발

118) 『단군신화에 갈무리된 문화적 원형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단군학연구』 16, 단군학회, 2007, 283~299쪽에 자세하게 다루었다.

119) 이어령, 『디지로그』, 생각의나무, 2006, 96쪽.

120) 『단군신화에 갈무리된 문화적 원형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294쪽.

121) 『단군신화를 보는 생태학적인 눈과 자연친화적 홍익인간 사상』, 『단군학연구』 10, 단군학회, 2003, 125쪽 참조.

전되고 정착생활에 적합한 난방방식으로 구들을 발명하였던 것이다.

선사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계 유일의 온돌문화는 바로 농경문화 중심의 정착생활에서 비롯된 문화유산이다. 최근까지 시골 부엌에는 부뚜막에 고정시켜 놓은 불박이 옹기물독이 있었고, 무쇠솥을 건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들을 데우는 정착문화의 두 전통이 살아 있었다. 유목생활에서는 거대하고 불안정한 빗살무늬형 토기가 불필요하고 또 결코 구들을 깔아 집을 짓는 문화를 창출할 수 없다. 생태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경생활에 따른 채식문화와 정착문화는 필연적으로 온돌문화를 창조하게 되었고 좌식생활의 주거문화를 독특하게 이룩하였다.

유목문화의 전통을 지닌 민족은 농경생활을 하며 집을 짓고 정착생활을 하여도 여전히 집안에서 돌아다니며 산다. 집안에서 입식생활을 할 뿐 아니라, 침실에서 시작하여 거실·옹접실·식당방·서재를 거쳐 다시 침실로 여러 방을 순환하며 생활한다. 그러나 우리는 좌식생활을 하며 한 방에 머물러서 침실과 거실, 옹접실, 식당방, 서재의 기능을 다 이용한다. 온돌문화를 누리려면 좌식생활을 하는 것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사랑방에 손님이 와서 술상을 내고 방석을 내 놓으면 옹접실이 되고, 밥상을 차려오면 식당방으로 바뀌며, 서안을 내놓고 독서하면 서재가 된다. 그리고 저녁에 이부자리를 깔면 침실로 변한다. 집안에서 기능에 따라 여러 방을 찾아다니며 생활하는 유목문화의 주거생활과, 한 방에 머물러서 다양한 살림살이를 끌어들여 여러 방의 기능을 모두 누리는 정착문화의 주거생활이 대조적이다. 뿌리깊은 정착문화의 전통이 주거생활에까지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다.¹²²⁾ 환웅본풀이에

122) 『주거문화 인식의 성찰과 민족학적 이해지평』, 『比較民俗學』 32, 比較民俗學會, 2006, 51~532쪽.

서 이룩한 정착문화의 원형이 현대 주거문화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고 있는 셈이다.

정착문화에서 형성된 온돌문화의 전통은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새롭게 바꾸는 창조력까지 발휘한다. 측면보일러는 밑면보일러로, 전기담요는 전기장판으로, 스프링침대는 돌침대로 모두 온돌문화에 맞게 재창조한다. 이제 돌침대를 비롯한 온돌보일러 문화는 주거문화의 ‘한류’로 외국에 수출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단군신화에 따라 독특한 좌식생활의 정착형 주거문화를 누리며 현대적인 온돌문화를 계속 창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새로운 주거문화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형 온돌문화의 정체성이 앞으로 인류의 주거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인 구실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IV. 결론 : ‘본풀이신화학’이 밝힌 신화연구의 길

한국신화의 원형인 본풀이의 논리에 따라, 신화의 본디 이치를 포착하고 단군신화를 두 유형의 본풀이로 분석하여, 단군신화나 고조선의 건국신화로 간주한 상투적 해석에서 비롯된 한계를 여러 모로 극복할 수 있었다. 환웅본풀이를 뜯어보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환웅의 신시시대 이전으로 소급해서 밝혔으며, 그 원형을 통해 현재의 생활세계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지금 여기서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본풀이신화학은 크게 일곱 가지 신화연구의 길을 새로 일깨워 주었다. 첫째, 신화는 그 자체로 소중한 문화유산이면서 민족의 역사와 문화, 세계관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문화유산 해설사 구실을 별도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풀이의 이치를 통해서 신화 자체의 정체

밝히는 데 머물지 않고, 민족사의 시작과 민족문화의 원형, 민족적 세계관 등을 새롭게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화는 스스로 독립적인 하나의 문화현상이면서, 다른 문화현상들을 두루 해명해주는 ‘문화의 문화’라는 점에서 ‘메타문화’라 규정할 수 있다.

둘째, ‘메타문화’로 보면 본풀이는 민족적 세계관을 새롭게 일깨워 주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풀이의 세계관은 공간적으로 태초의 우주에서 지금 여기의 현장까지 총체적으로 열려 있어서 민족주의나 지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세계를 포괄하고 있다. 하늘과 땅, 산과 물, 지상과 지하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하늘 위의 하늘, 땅 속의 땅, 이승과 저승까지 아우르는 유기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풀이의 세계관은 민족주의나 인본주의 신화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한다.

셋째, 이러한 본풀이의 세계관은 환웅본풀이의 홍익인간 사상과 만난다. 따라서 구전되는 본풀이와 문헌신화는 같은 세계관 속에서 형성되고 공유되었다고 하겠다. 그 동안 홍익인간을 단군의 사상이나 고조선의 이념으로 인식했던 것은 환웅본풀이를 신시건국신화로 분별해서 포착하지 않고 단군본풀이나 고조선신화의 일부로 간주한 까닭이다. 홍익인간은 환웅의 사상이자 신시의 건국이념으로서 인간 중심주의나 민족중심주의를 넘어선 세계관이다.

환웅의 홍익인간 사상은 천상세계에 대한 천하세계의 개념으로서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뛰어넘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애를 넘어서는 생태학적이고 우주론적 세계관으로서 천하세상을 두루 이롭게 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웅본풀이의 맥락에서 말하면 홍익인간은 사실상 ‘홍익천하사상’이자 ‘홍익생명사상’으로서, 삼라만상을 모두 이롭게 하는 생태학적 공생의 이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생태학적 공생의 이념으로서 홍익인간 사상은 두 가지 실천의 보기로 잘 드러난다. 하나는 환웅의 신시문화 수준이며, 둘은 이웃 민족과 나라가 신시문화를 동경한 사실이다. 환웅이 360여 가지 일을 다스린 데서나 재세이화의 방법에서는 물론, 이웃 민족이 찾아와서 더불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자 했을 때, 문화영웅으로서 기꺼이 문화생활을 일깨워 주고 마치 아내를 맞이하듯이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한 민족으로 결연을 맺었던 데서 특히 잘 드러난다. 비록 혈연과 문화의 배경은 달라도 문화적 교류와 동질성 확보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환웅의 홍익인간 사상에는 민족적 배타성은커녕 오히려 인류를 넘어서서 자연생명까지 아우르는 공생적 세계관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세계관과 선진문화의 수준은 중국인들의 문헌기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고대 중국인들은 동이를 군자국과 불사국으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공자까지 이민을 꿈꿀 만큼 선진문화를 지닌 민족으로 동경했다. 환웅의 신시시대는 물론 공자시대까지 홍익인간의 문화가 이웃나라로부터 국제적 공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홍익인간을 민족주의 이념으로 가두지 말고 ‘홍익천하’의 사상으로서 본디 정체성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홍익천하사상은 일찍이 하늘을 섬기는 제천문화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정착형 농경문화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신시의 제천의식 문화와 그 이전의 정착문화를 근거로 고조선 이전에 형성된 신시문화의 지리적 위치와, 고고학적 유물을 통한 식문화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명할 수 있었다. 신시시대 제천문화 유적으로서 홍산문화의 정체는 물론 정착문화 유산으로서 빗살무늬토기를 해석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시베리아 기원설을 극복하고 민족사와 민족문화의 원형을 역사적으로 소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풀이신화

학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상고사와 고고학의 문제까지 설득력 있게 해명할 수 있는 신화학의 새 지평을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여섯째, 단군신화에서 형성된 문화의 원형이 현재의 생활세계 속에서 고스란히 지속되며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착생활에서 비롯된 온돌문화는 주생활이 양육으로 바뀌어도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적인 난방기술과 주거문화로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그리고 쭉과 마늘로 상징되는 채식 중심의 식문화 또한 여전히 지속되면서 건강한 식문화로 국제사회에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주생활과 식생활에서 세계인의 문화로 공유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본풀이신화학은 문화적 원형을 찾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포착하는 데서 나아가, 현대사회에 맞는 인류의 보편적 문화로 재창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제어 : 본풀이의 논리, 단군신화, 환웅신화, 신시문화, 홍산문화, 신화고고학, 신화현고학, 본풀이신화학

〈참고문헌〉

- 강영두, 『연합뉴스』 2007년 10월 21일 「카자흐에 아파트韓流」.
- 郭大順, 「序言: ‘遼河文明’ 解」, 遼東城博物館·遼東城文物考古研究所編, 『遼河文明展文物集萃』, 2006.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전통문화』, 한국박물관학회, 1998.
- 김병모, 『금관의 비밀—한국 고대사와 김씨의 원류를 찾아서』, 푸른역사, 1998.
- 김성환, 「최초의 한류, 동아시아 삼신산 해상루트의 기억을 찾아서」, 『동아시아 전통문화와 한류』, 동양사회사상학회 국제학술대회 전남대학교 발표논문집, 2007.1.8.
- 金烈圭, 『韓國의 神話』, 一潮閣, 1976.
- 金烈圭, 『韓國神話와 巫俗研究』, 一潮閣, 1977.
- 金烈圭, 「總論: 民談을 보는 多様な 눈」, 『民談學概論』, 一潮閣, 1982.
- 金泰坤, 『韓國巫歌集』 4, 集文堂, 1978.
- 金泰坤, 『韓國民間信仰研究』, 集文堂, 1983.
- 김태곤 외, 『한국의 신화』, 시인사, 1988.
- 김화경, 『한국 신화의 원류』, 지식산업사, 2005.
- 김효정, 「튀르크족의 기록에 나타난 ‘텡그리(Tengri)’의 의미」, 『韓國中東學會論叢』 28-1, 韓國中東學會, 2007.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김현선, 「<베포도엮침>과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比較民俗學』 28, 比較民俗學會, 2003.
- 박선희, 『한국 고대 복식—그 원형과 정체』, 지식산업사, 2002.
- 박선희, 「고대 한국갓옷의 원류와 동북아시아에 미친 영향」, 『고대에도 한류가 있었다』, 지식산업사, 2007.
- 박영은, 「B. 라스뿌찐의 『마쭌라의 이별』에 나타난 ‘우주목(宇宙木)’의 상징성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13, 세계문화비교학회, 2005.
-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 성삼제, 『고조선 사라진 역사』, 동아일보사, 2005.
- 孫晉泰,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6.
- 慎鏞廈, 「檀君說話의 사회학적 해석」, 『설화와 의식의 사회사』, 문학과지성사, 1995.

- 愼鏞廈, 『韓國民族의 形成과 民族社會學』, 지식산업사, 2001.
- 신형식·이종호, 「‘中華5천년’, 紅山文明의 再照明」, 『白山學報』 77, 白山學會, 2007.
- 안영배, 「중 라오시 고조선 근거지로 추정」, 『주간동아』, 2003.1.23.
- 우실하, 「요하 문명, 홍산문화와 한국문화의 연계성」, 『고대에도 한류가 있었다』, 지식산업사, 2007.
- 우실하, 「홍산문화, 요하문명과 한반도의 연계성」,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실증적·문화적 인식』, 제43차 단군학회 학술대회 동북아역사재단 세미나실 발표논문집, 2007.6.2.
- 우실하, 지도 「고조선의 강역과 요하문명」, (주)동아지도, 2007.
- 윤내현, 『고조선 연구』, 一志社, 1994.
- 윤내현, 『한국열국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 윤내현 외, 『고조선의 강역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6.
- 이건무·조범중, 『선사유물과 유적 - 한국미의 재발견』, 솔출판사, 2003.
-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 이어령, 『디지로그』, 생각의나무, 2006.
- 이종미, 「한국의 떡 문화 형성기원과 발달 과정에 관한 소고」,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7,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92.
- 이형구, 「발해연안 빗살무늬토기 문화의 연구」, 『한국사학』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이형구, 『한국 고대문화의 비밀』, 김영사, 2004.
- 이형구, 「‘발해문명’ 창조 주인공은 우리 민족」, 주간 『뉴스메이커』 제745호, 경향신문사, 2007.10.16.
- 임재해, 「단군신화에 던지는 몇 가지 질문」, 『민족문화의 논리와 의식』, 지식산업사, 1992.
- 임재해,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편, 「고대 신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진화론적 자연관」, 『민속연구』 8, 민속원, 1998.
- 임재해, 「韓國 神話의 敘事構造와 世界觀」, 『說話文學研究』(上),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8.
- 임재해, 김중성 편, 「한국인의 산 숭배 전통과 산신신앙의 전승」, 『산과 우리 문화』, 수문출판사, 2002.
- 임재해, 「한국민속사 시대구분의 모색과 공생의 시대 전망」,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 도서출판 당대, 2002.

- 임재해, 『안동문화와 성주신앙』,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 임재해, 「단군신화를 보는 생태학적인 눈과 자연친화적 흥익인간 사상」, 『단군학연구』 10, 단군학회, 2003.
- 임재해, 「왜 지금 거래문화의 뿌리를 주목하는가」, 『比較民俗學』 31, 比較民俗學會, 2006.
- 임재해,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민속원, 2006.
- 임재해, 「굿 문화사 연구의 성찰과 역사적 인식지평의 확대」,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2006.
- 임재해, 「주거문화 인식의 성찰과 민속학적 이해지평」, 『比較民俗學』 32, 比較民俗學會, 2006.
- 임재해, 「단군신화에 갈무리된 문화적 원형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단군학연구』 16, 단군학회, 2007.
- 임재해, 「물질문화의 재인식과 문물로서 유무형 문화의 유기적 해석」, 『민속학연구』 20, 국립민속박물관, 2007.
- 임재해, 「맥락적 해석에 의한 김알지신화와 신라문화의 정체성 재인식」, 『比較民俗學』 33, 比較民俗學會, 2007.
- 조동일, 「신화의 유산과 그 변모 과정」, 『우리 문학과 의 만남』, 弘盛社, 1978.
- 조동일, 『동사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조동일,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 2-경계 넘어서기』, 계명대학교출판부, 2005.
- 조동일, 「세계 속의 한국신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비교민속학회 주관 ‘민족문화의 원형과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학술대회 3’ 발표논문집(프레스센터, 2006.12.8~9).
-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2.
- 崔南善, 「不咸文化論」, 『六堂崔南善全集』 2(壇君·古朝鮮 其他), 玄岩社, 1973.
- 하문식, 「고조선의 돌돌림유적에 관한 문제」, 『단군학연구』 10, 단군학회, 2004.
- 하문식, 「고조선의 돌돌림유적 연구: 追補」, 『단군학연구』 16, 단군학회, 2007.
-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 알렉상드르 기유모즈, 크리스찬아카데미編, 「現世的 福樂追求의 信仰」, 『韓國의 思想構造』, 삼성출판사, 1975.
-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上), 大阪屋號書店, 1937.
- Mircea Eliade., *Myths, Dreams and Mysteries*, New York : Collins. 1968.

<Abstract>

The Subjective Cognition of Korean Mythology and the Identity of National Culture

Lim, Jae-Hae

This explicates the identity of Korean Mythology as a logic of ‘Bonpuri’ which is the typical example of Korean Mythology, and not as a theory of Foreign Mythology. ‘Bonpuri’ is a song that interprets god’s fundamental history through exorcism of an exorcist. Starting from the genesis to the present, it is a mythology that depicts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the history of the na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an exorcist. The word ‘Bon’ from Bonpuri is the beginning of a history and the original form of a culture. It is Bonpuri that unravels the history of genesis and the prototype of culture, a model and a function of Korean Mythology.

Our mythology is nothing but a compressed file which puts the first form of national culture and identity. Accordingly, through the logics of Bonpuri, the road to mythology research is to solve the compressed form and identity of national culture in myths. To have a detailed look into Changsega of shamanism mythology, many mythologies are captured such as the Creation Mythology, the Progenitor Mythology, and the Solar & Lunar Control Mythology. The truth is that Dangun Myth—known as the story of Gojoseon foundation—is combined with Hwanoong and Dangun Myth. The Jumong

Myth is put together by Haemosu and Jumong Myth thought in the same logic. It is surely enough to grasp the truth that Shinsi and Buyeo existed before Gojoseon and Goguryo era respectively.

The story of Hwanoong tells about Hwanoong giving Shinsi under Shindansu of Mt. Taebaek, ruling over 360 matters, and saving the world from confusion and hardships. Therefore the myth itself is possible to be called the ‘Shinsi Nation’, as the story tells about Hwanoong building theocratic nation called Shinsi and becomes a heavenly father. Dangun Myth added to Hwanoong Myth, tells and captures the history of the foundation of Gojoseon. Because two stories are not viewed distinctively, it is misunderstood considering ‘Hongik Human’—a devotion to the welfare of mankind—that is an idea of Hwanoong and an ideology of Shinsi, as the idea of Dangun or the thoughts Gojoseon foundation.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find the original form of national culture from Shinsi culture before Gojoseon culture.

Hwanoong was a heavenly father of Shinsi who made agricultural civilization, pursued eternal life, and accomplished constitutional and virtuous ruling. The evidence of memorial service toward heaven can be found at an altar ruin of Hongsan Culture and eternal life and evidence of successful ruling are in the record of China’s ancient history which notes Dong-ee is a virtuous and invincible nation. Agricultural tradition is discovered from Bitsal Pattern Vessel and Ondol, both are relics of settlement life. So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word ‘Tengri’—which means the heaven and heavenly gods in the nomadic field—is delivered since Dangun.

Bonpuri mythology requires mythical archaeology which goes toward the

beginning of the world, and mythical modernology which explains the present life. Dangun myth as modernology is alive in our lives just as it was. Wormwood and garlic in the bear's stomach still continues in our dietary life and Ondol from the tradition is being connected as an identity of house living. The cultural creativity shaped from Ondol accepted boiler and bed and both of them are exported to overseas as a product name called Ondol Boiler and Ondol Bed. Therefore, by unraveling national mythology through Bonpuri, it is possible to reason the original form of the ancient culture as well as to explicate the identity of the present culture.

※ Key Words : a logic of Bonpuri, Dangun Myth, Hwanoong Myth, Shinsi culture, Hongsan culture, Bonpuri mythology, mythical archaeology, mythical modernology